碩士學位論文

旌閭碑에 나타난 濟州人의 孝行 硏究

指導敎授　安　昶　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國民倫理敎育專攻

張　巨　秀

2000年　8月

旌閭碑에 나타난 濟州人의 孝行 硏究

指導敎授　安　昶　範

이 論文을 敎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0年　4月　日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國民倫理敎育專攻

提出者　張　巨　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張巨秀의 敎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0年　7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 査 委 員 _____ 印

審 査 委 員 _____ 印

〔국문초록〕

정려비에 나타난 제주인의 효행 연구

장 거 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지도교수 안 창 범

본 논문은 효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제주도에 산재해 있는 효행에 관한 비문 및 효행으로 정려 포양된 인물들의 효행사례를 분석하여 효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교육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 문헌 조사, 현지 답사, 사례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론적 고찰에 있어서는 효의 개념을 전통적인 면과 현대적인 면에서 고찰하였고, 문헌 조사에서는 현재까지 발간된 효행에 관한 책자를 참고하여 정려 포양된 인물들의 효행 내용을 조사하였다. 현지 답사에서는 비문이 있는 현지를 답사하여 비의 존재 유무 및 비문을 대조 확인하였으며, 결과 분석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효행사례를 중심으로 빈도가 많은 사례 순으로 재정리하였다.

비문에 대한 조사는 제주도내에 현존하는 비석들 중에서 효자·효부비는 물론 충효비, 효열비, 충효열비등 효행에 관계된 비문(효행비)들을 총 망라하였다.

이상의 연구 방법으로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면

1.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시책으로 정문정책을 통한 서민교화 사업이 적극 추진되었으며 1800년대에 효행 인물이 집중적으로 정려 포양되었다.
2. 현재에 남아있는 효행에 관한 정려비는 시지역 3기 북제주군 37기 남제주군 12기 등 총50기가 남아있다.
3. 구체적인 효행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단지수혈 33건, 감천의 효 21건, 대를 이은 효행 15건, 대변을 맛본 사례 12건, 삼년상을 잘 치른 효행 10여건. 불구의 몸을 잘 모신 효행 10건, 금품 기부 사례 10건, 양부모를 잘 모신 효행 4건, 독신으로 지낸 효행 3건, 머리를 자른 단발 효행 3건, 기타 4건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4. 특징적인 효행 사례로는 노루, 꿩, 까치, 부엉이, 메추라기, 전복, 물고기 등이 등장하여 효성을 다하기 위해서 애쓰면 하늘도 감동하여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된다는 감천의 효행이 많이 조사되었으며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할 만한 소재가 다양하다
5. 전통의 재창조라는 측면에서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효 규범이나 정신들을 그 규범이 처음에 가졌던 근본정신에 입각해서 재해석하려는 노력과 자세가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를 토대로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효행 사례와 그렇지 못한 효행 사례를 현실에 맞게 잘 조화하여 교육하고, 학생의 성별과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한다면 제주인의 효행 사례를 활용한 효 교육이 학생의 인성교육이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

* 본 논문은 200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Ⅰ. 서 론 1

Ⅱ. 濟州人의 孝 精神 4

1. 孝行의 基本精神 4

2. 孝行의 內容 6

3. 濟州人의 氣質과 孝 精神 8

Ⅲ. 旌閭碑와 濟州人의 孝行 10

1. 旌閭碑와 忠孝烈 奬勵制度 10

2. 旌閭碑의 내용과 濟州人의 孝行 12

Ⅳ. 旌閭碑의 分類와 敎育的 意義 28

1. 旌閭碑의 分類 29

2. 孝行事例別 分類 33

3. 旌閭碑의 敎育的 意義 51

Ⅴ. 결 론 53

참고문헌 56

Summary 5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목 차

〈표-1〉 효행비 일람 28

〈표-2〉 정려된 연대에 따른 분류 29

〈표-3〉 비 소재지에 따른 분류 31

〈표-4〉 효행사례별 빈도 수 3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서 론

우리 사회에서는 예로부터 효행의 정신이 일상 생활 속에서 이어져 왔다. 율곡(栗谷)은 효자애일(孝子愛日)이라 하여 효자는 날을 아끼고 세월이 흐르는 것을 꺼려한다고 했다. 즉 효자는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부모님이 늙고 병들어 돌아가시면 모실 수 없기에 지극한 효심에서 나온 말이다. 효친은 우리 나라의 윤리를 지탱해 온 원천이고, 아직도 남아 있는 효친 사상이 외국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경로효친은 결코 낡은 도덕률이 아니라 오늘에 살려야 할 덕목으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자기 부모를 섬기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생활은 아름다운 일이다.

최근 세계화 정보화로 인한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윤리·도덕적 혼란을 극복하고 민족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 효 정신과 지혜를 올바르게 계승 실천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

孝는 우리의 고유 도덕사상으로 윤리교육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孝가 가정윤리와 교육의 기본이 되었고, 이것이 확충되어 사회윤리와 민족윤리의 기본 틀이 되었으며, 가정교육에서 민족교육으로 연계되어 사실상 한민족의 사상이 되어 왔다. 효가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비롯된 가족주의에 그친 것만이 아니라 의리사상으로 확충되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충효를 겸전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았고 국가의 위기에 처해서는 내 한 몸(一身)과 한 가정(一家)을 버리고 節義殉國하는 경지에까지 이른 것을 장하게 보았다.[1] 바람직한 가정윤리관의 정립과 바른 가정교육이 모두 함께 이루어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까지 연계되어야 교육의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다.

효는 자식된 자의 마땅한 도리로서 부모에 대한 치사랑이며 봉사이다 한 인간은 부모에 의해 태어나고 존재 근거를 가지므로 부모에 대한 효행은 모든 행위의 근본이 된다 이러한 感恩의 정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있으니 까마귀 새끼도 자란 뒤에는 어미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주어 부모의 공을 갚으니 이를 慈烏反哺 以報親이라하고 까마귀를 孝鳥라한다 「擇園史話」를 보면 미개한 짐승인

1) 주간교육신문사(1998), 「敎育評論」, p.20

승냥이도 제부모가 죽으면 春分과 秋分에 제사를 지낸다 하고 수달피는 제부모가 죽으면 장례식을 지낸다는 기록이 있다. 곤충인 꿀벌도 그 왕이 죽으면 머리에 하얗게 몽상을 쓴다. 이와같이 미개한 짐승과 곤충도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효도하지 않는다면 동물과의 차이는 무엇인가?[2)]

이러한 효는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경로 사상으로 작용한다. 효는 우리의 공통적인 문화적 규범이며 이에 준거해서 부모와 연장자들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을 판정한다. 즉 효는 광범위하고도 근본적인 사회적 규범과 합치되는 우리의 중요한 가치이며 이 규범에 준거해서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교화되어지는 것이다. [3)]

효 사상의 현대적 재정립과 실천을 위한 노력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청소년 교육이다. 다시 말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 교육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전통적인 면에서 그리고 교육적인 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효 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웃어른들의 모범과 훈화 및 체험을 통해 자녀들이 습관화되고 내면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해방 이후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작된 이래 계속 효 교육이 실시되어 왔지만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문제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 하나는 청소년들을 제대로 이해하여 그에 맞는 내용과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또한 효행에 관한 奬勵制度가 예전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미미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선시대의 旌閭碑에 의한 忠孝烈 奬勵制度와 비교해 볼 때 현재의 효행에 관한 표창제도는 미약하기 그지없다. 旌閭碑에 새겨진 金石文은 모진 風霜에도 꿋꿋이 견뎌내어 오랜 세월 동안 그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수 있었던 반면 현재의 표창장이나 금전에 의한 표창제도는 그 사실이 곧 잊혀질 뿐만 아니라 자칫 허무감이나 이기심을 조장하기가 쉽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학생들이 늘 가까이 접할 수 있고 현장답사에도 용이한 제주도에 산재해 있는 효에 관한 碑文을 조사하고 효행으로 정려(旌閭)

---

2) 안창범(1977), "경로효친 교육의 지도 방향과 한계" 「교육제주」, 일신옵셋인쇄사, p.22.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 「전통윤리의 현대적 조명」, 천풍인쇄주식회사, p 120

포양(褒揚)된 인물들의 효행사례를 부각시켜 효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교육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 문헌 조사, 현지 답사, 사례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론적 고찰에 있어서는 효의 개념을 전통적인 면과 현대적인 면에서 고찰하며 문헌 조사에서는 현재까지 발간된 효행에 관한 책자를 참고하여 旌閭된 인물 중심으로 재정리하였다. 결과 분석에 있어서는 구체적 효행 사례를 중심으로 빈도수가 많은 사례 순으로 정리하였다.

비문에 대한 조사는 제주도내에 현존하는 비석들 중에서 효자·효부비는 물론 충효비, 효열비, 충효열비등 효행에 관계있는 비문(孝行碑)들을 총 망라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Ⅱ. 濟州人의 孝 精神

1. 孝行의 基本精神

한국 전통사회에서 효(孝道)는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매우 근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이었다. "不孝"라는 낙인이 찍히면 인간으로서 일차적인 자격을 잃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불효라고 인정되는 아들이나 며느리를 마을에서 완전히 추방해 버리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만큼 효 사상은 한국인의 윤리관 속에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4] 이것은 孝를 문자화하여 기록하고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유교 사상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우리 민족에게는 효 사상이 뿌리내려 생활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선 효의 어의를 살펴보면, 효도라는 말이 기록상 처음 쓰여지기는 「漢書」의 "永思孝道"라는 문구라 한다.[5] 孝를 자의로 풀면, 노(老)의 약자 '耂'와 '子'의 회의문자로서 자녀가 노친을 받들어 모심을 의미하고, 어의로 말하면 善事하는 덕행을 의미한다[6] 이를 통해서 보면, 효의 대상은 살아있는 친부모와 모든 조상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인간이 역사적 존재로서의 자각을 달성하는 일'로 규정이 되는 것이다.[7] 뿐만 아니라 친척과 이웃 즉 사회적 웃어른으로 확대됨으로써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당연한 도리가 된다.

효 사상의 문헌적 기록으로 최초라 할 수 있는 것은「書經」에 나오는 五典이다. 이 五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주희의 해석에 따른 五常說로서 맹자의 오륜을 가리키며, 다른 설은 바로 "아비는 친하고(父親), 어미는 자애롭고(母慈), 자식은 효도하고(子孝), 형은 우애하고(兄友), 아우는 공손하다(弟恭)."라고 하는 것인데, 후자의 내용은 孝·悌·慈라는 가족 윤리의 근간이 된다.[8]

효 사상의 체계화 과정을 살펴보면, 공자는

---

4) 이영호(1977), 「한국인의 가치관」, 일지사, p.139
5) 고사성어사전간행회 편(1961), 「고사성어사전」, 학원사, p.1210
6) 안창범 (1978), "한국충효사상의 연구",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p. 8.
7) 최근덕(1995), 「유학강의」, 성균관출판사, p.34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5)」,웅진출판주식회사, p 638

첫째, 효의 본유 관념으로서 공경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봉양하는 일 뿐만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敬)이 관건이 되며, 웃어른에 대한 예절로는 얼굴빛, 즉 존경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하였다.

둘째, 부모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효경에서 "우리의 신체는 머리털에서 살갗에 이르기까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손상할 수 없음이 효의 비롯이니라."라고 한데서 극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셋째, 효는 생시로부터 사후에까지 확산된 개념으로 드러난다. 공자는 "살아 계실 때도 예로써 섬기고, 장례도 예로써 치르고, 제사도 예로써 모시라."하였으니, 유교의 상, 제례가 조상 숭배사상과 결합하여 효 사상의 일부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맹자는 先秦時代 효 관념의 정립자라 할 만큼, 효 사상을 유가사상의 중심사상으로 굳게 다져 놓았다. 효를 '百行의 根本'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자의 지극한 것으로는 어버이를 존경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어버이를 존경하는 것의 지극함은 천하를 가지고 봉양하는 것보다 더 지극한 것이 없다" 9)라고 하여 제왕의 大孝를 말함과 동시에 입신양명을 효의 중심요소로 부각시켰다.

그 후 秦, 漢 대를 거치면서 사회적·정치적 변화에 따른 사상적 변화에 따라 효 사상도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三綱의 확립으로 인해 상하관계가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고착화된 점과, 忠과 상호 충돌을 낳게 된 점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충신이 효자의 문에서 나온다."고 하여 효를 근본으로 하여 서로 조화시키게 되었다. 즉, 효는 자신의 신체를 잘 보존하고 부모를 잘 봉양하며 후대를 계승해야 한다는 가족사회 바탕의 윤리와 국가나 군주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는 국가적 차원의 윤리도 된 것이다.

한편, 경을 효의 기본 이념으로 삼은 것은 공자로부터 비롯하였다.

맹자는 공자의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仁者는 愛人하고, 有禮者는 敬人하나니"10)

이렇듯 어진 사람은 남을 사랑하며 예를 아는 사람은 남을 공경한다는 효친의 道로서의 애경사상은 인간의 道로 정립되었고, 그 중에서도 경 사상은 宋儒(송유)들에 의하여 철학적 개념으로까지 확대되었다.11)

---

9) 「孟子」, 萬章章句 上 孝子之至 莫大乎尊親 尊親之至 莫大乎以天下養 爲天子父 尊之至也 以天下養 養之至也

10) 김문해 역(1991), 「맹자」, 일신서적출판사, p.232.

11) 양근석(1994), 「한국사상과 윤리」, 형설출판사, p.213

2. 孝行의 內容

중국 고대의 효 사상에서 특기할만한 사실은 효에 관한 대표적 고전인「효경」의 저작이다. 효경에서의 효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선 효를 덕의 근본으로 삼고 있으며, 효의 방법으로는 직접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사친, 그리고 간접적이고도 종국적인 입신행도(立身行道)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윤리 도덕인 효를 "하늘의 불변한 기준이요 땅의 떳떳함이다." [12]라는 우주적 원리로 승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교화의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먼저 「효경」에서 효의 始終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

효경의 개종명의장 1장에서 "효라는 것은 덕의 근본이며 가르침이 생겨나는 바탕인 것이다. 사람의 신체와 머리털과 피부는 모두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이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일이야말로 효의 시작인 것이다. 몸을 올바로 세우고 도를 행하여 후세까지 이름을 드날림으로써 부모님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의 끝맺음인 것이다. 효라는 것은 어버이를 섬기는데서 시작하여 다음으로는 임금을 섬기고 끝으로 입신양명을 하는 것이다. 너의 조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그 덕을 수득하여야 한다." [13]라 하였다.

부모가 물려준 신체의 보전으로부터, 그의 행적에 관한 후세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효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효는 천자·경대부·서인 등 모든 신분 계층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윤리 규범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효는 '至德要道'라는 말로 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행실에 나타나는 것을 道라 하고 자기 마음에 스스로 터득하는 것을 德이라 하는 것이므로, 덕의 지극한 것이 바로 도의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서 도의 가장 중요한 것에서도 그 첫째를 孝라 하였기 때문에, 지덕이라는 것도 결국 효로 볼 수 있다.

전통적인 효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종합 정리한 오늘날의 효 개념을 보면,

「새 우리말 큰 사전」[14]에서 효도는 ①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 효행의 도, ②

---

12) 황병국 역(1990), 「효경」, 혜원출판사 p 66.
三才章 · 天之經也, 地之誼也

13) 「孝經」, 開宗明義章· 夫孝, 德之本也, 敎之所繇生也,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 夫孝, 始於事親, 中於事君, 終於立身 大雅云, 亡念爾祖聿修其德

14) 신기철·신용철(1988),「새우리말 큰사전」,삼성출판사, p.3807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일이라 하였고, 「한국민족 문화 대 백과 사전(25)」[15]에 보면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경애의 감정에 토대를 두고 행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중국 고유의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본래 부모와 자녀간의 효가 도덕 규범이 기초가 되고, 더욱 확대되어 국가로부터 가족에 이르기까지 최우선의 가르침으로 뿌리박게 되었다는 사실에 그 독특성이 있다. 효가 본래 부모가 살아 있는 자녀가 해야 할 도덕을 의미함에는 변함이 없으나 중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화하여 사후의 영원을 바라고, 자손이 조상의 제사를 끊기게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상 제사는 초혼(招魂)을 의미하며, 사후에도 현세에 돌아올 수 있다고 믿기에 조상 제사가 효의 하나가 된다 또한 이 제사를 행하는 주체는 자손이기 때문에 자손의 존재가 필요하며, 따라서 자손 특히 남자아이를 낳는 것이 효의 하나가 된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정성을 다하고, 죽은 뒤에는 경애하는 마음가짐으로 조상의 제사를 태만하게 하지 않고, 또한 자녀를 생산하여 제사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 전체가 효"라고 하였다. 또, 유정기 편저 「동양사상사전」[16]에 의하면, "효란 사친의 덕행, 事上의 도리, 덕행의 근본, 悌의 類語"라 하였다.

부모의 은혜란 무한하여 갚을 길조차 없다. 그러므로 보은의 근거는 낳아 주심과 길러 주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종합해 보면 효란 자식이 부모에 대해 공경 봉사함으로써 살아 계실 때는 몸과 마음을 평안케 하여 그 뜻을 받들고 이름을 드높이며, 돌아가셨을 때는 그 유지를 받들며 살아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모시는 것이다. 외적인 면에서 보면, 친자간에 가정윤리의 근본으로 형성된 원초적인 상호관계를 유지 발전하기 위하여 규율하는 일종의 질서인 것이다. 나아가 그 의미가 확대되어 윗사람을 섬기는 경로의 윤리와 국가와 백성간의 충의 윤리를 지탱하는 질서의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바로 孝는 모든 인간 행동의 근본이라 하겠다.

---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앞의 책, p 637
16) 유정기 편(1965), 「동양사상사전」.우문당출판사, p 156.
17) 양은식(1994), 앞의 책, p 212

3. 濟州人의 氣質과 孝 精神

한나라의 國民性은 오랜 歷史的인 문화적 사회적 背景과 立地的인 環境에 의하여 形成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각 地域의 주민들의 氣質도 이러한 歷史的 諸要素와 그 地理的 環境에 따라 독특한 氣質로 형성된 것이라 하겠다.

옛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 8道民의 기질을 列擧하여 보면 咸鏡道民의 기질은 泥田鬪牛이고 平安道民의 기질은 猛虎出林이고 黃海道民의 기질은 石田耕牛이고 京畿道民의 기질은 鏡中美人이고 江原道民의 기질은 岩下老佛이고 忠淸道民의 기질은 淸風明月하고 慶尙道民의 기질은 雲天高鶴하고 全羅道民의 기질은 古塚狐舞라고 비유하여 評하여지고 있다.[18]

제주도는 萬頃蒼波 絶海孤島이다. 이러한 입지적 환경으로 인해 제주인의 기질은 강인한 투지력과 독립심이 강한 반면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濟州人의 氣質을 비유를 한다면 황해도민의 기질인 石田耕牛에 비유할 수 있으나 황해도는 大陸에 連續이 되어 있어 제주와는 지리적 환경이 비교가 안되며 또 황해도에는 자연적인 산물인 3災가 없으나 제주에는 혹독한 3災가 年年 계속되어 도민들을 울게하고 飢餓線上에 허덕이게 했다.

제주를 삼다의 섬으로 처음 기록에 나타난 것은 세종 10년에 본도의 조세를 조정하는데서 「此島地勢 山高多風災, 谷深多水災, 土薄多旱災 三災並侵 年必多歉 若責納稅 民無以生」이라 하는데서 濟州를 3災의 섬 혹은 3多의 섬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오늘에는 3災와 더불어 3多라고도 하는데 3多에는 水多 旱多 대신에 石多 女多가 들어있다.

濟州民들은 先民社會로부터 현재까지 風多, 水多, 旱多의 세 가지 自然的 環境 때문에 無限한 苦痛과 삶에 대한 試鍊을 겪어왔다.

그뿐만 아니라 歷史的인 環境으로는 高麗 肅宗 以後 제주는 高麗의 一個郡으로 編入되었고 예종때는 縣으로 却下되면서부터 京來官의 到任은 제주사회에 큰 경제적인 負擔을 가져다 주었을뿐만 아니라 高麗末부터 朝鮮朝에 걸쳐서 元의 支配 및 倭寇의 侵犯에 대한 不安, 牧民官들의 苛斂誅求 및 食糧難과 軍役義務와 身貢의 過重, 그리고 土豪와 官吏들의 橫暴 등은 제주인들의 생존에 威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生에 대한 포기로까지 이르는 悲慘한 상황이었다. 기근 현상이 자주 생기고, 과중한 군역의 의무와 왜적의 침범에 대한 불안 등으로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인구가 격감하게 되자 1629년(仁祖 7) 제주도 자체 방어의 어려움이 많게 되자 제주도민의 출륙을 못하게 하였고 특히 여성들은 육지

18) 제주도(1988), 「제주선현지」, 일신옵셋인쇄사, p.41.

인과의 혼인관계까지도 금지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순조 말(1834)까지 약 200년 동안 지속되었으므로 육지부와의 교역은 물론 문화교류도 막혀 버렸으니 제주도로서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다. 19)

그러나 濟州人들은 이러한 苛酷한 역사적인 産物에 대해 굴하지 않고 악착스럽게 사회적 역사적인 시련을 强靭不息의 강한 意志로서 아름답게 克服하여 오늘에 살기좋은 제주를 건설해 낸 것이다.

이런 自然的 社會的 歷史的 試鍊을 克服하는 諸要素로서는 勤勉과 自助, 儉素와 節約, 協同과 相助, 强靭과 進取 등의 德目을 제주인들이 몸소 體質化하여 어떤 逆境에도 굴하지 않고 不屈不撓의 敢鬪精神과 强靭不息의 의지를 發揮하였기 때문에 비통한 현실을 극복하여 살기좋은 樂園濟州를 건설한 것이라 하겠다. 20)

제주는 朝鮮朝에 들어오면서부터 興學이 일어났고 京鄕의 文物이 들어와 도민들의 생활의 향상은 물론 善政官들의 민의 중심의 행정집행과 碩學 및 政客들의 유배로 인하여 도민들과의 접촉은 도민들의 의식면에 큰 자극을 주었고 고루한 풍속이 革罷되고 유교적인 가치관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제주민들은 삼려의 고장답게 사람들의 본성이 아름다운 데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의 영향 밑에 조상에 대한 崇祖의식이 강하게 반영되어 부모를 공경하고 공양하는 마음과 부군을 존경하고 섬기는 마음이 생활면에서 투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도에는 타지방보다 孝子 烈女 孝婦 節婦 등 많은 인물이 배출되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9) 제주도교육청(1993), 「우리고장 제주도」, 일신옵셋인쇄사, p. 31
20) 제주도(1988), 「제주선현지」, 일신옵셋인쇄사, pp 41~42.

Ⅲ. 旌閭碑와 濟州人의 孝行

1. 旌閭碑와 忠孝烈 壯麗制度

근세조선은 유교를 국교로 하는孝治主義국가였다. 이로 인하여「家傳忠孝世傳仁敬」이라하여 家庭에는 忠孝를, 王世家에서는 仁敬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사회풍조였다 그리하여 세종 5년에는 國朝五禮儀를 간행하였고 세종 10년에는 孝行錄을 續刊케 되었으며 세종 15년에는 효행록을 더욱 발전시켜 君臣, 父子, 夫婦의 三倫의 모범이 되는 대표적 충신 35명, 효자 35명, 열녀 35명의 행실을 그림으로 그리고 한문과 한글로 설명을 붙인 三綱行實圖가 간행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조선왕조는 충·효·열에 대한 표창도 역대를 통해 가장 非常하였으며 유교적 기본덕목을 담은 서적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서 충효사상이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또한 중요시되었다. 또한 孝經이 한글로 번역되어 널리 읽히게 되었으며 충·효·열을 노래한 시나 소설 등 문학작품과 서적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沈晴傳, 春香傳, 思親家, 三門忠孝錄, 續三綱行實圖, 訓戒子孫歌, 思美人曲 등이 發刊되었으며 一般庶民 문학으로 발전된 심청전과 춘향전은 판소리로도 발전되어 孝烈思想은 더욱 심화되고 보편화되었을 뿐 아니라 심청의 부모를 위해 죽음도 불사한 효심은 하나의 종교적 차원으로까지 승화된 것이었다.

또한 조선시대 전반을 통하여 충·효·열을 기념하는 旌門을 비롯해서 충효가 들어가는 科擧이름, 軍隊이름, 祠堂이름, 王名, 王后名, 王子名, 洞里이름,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이 많으며 孝俗도 그야말로 다양하였다. 21)

조선왕조 때의 충효열 奬勵制度 중의 하나로서 정려비(旌閭碑)는 충정(忠貞)을 표창하는 비이다. 나라에서 미풍 양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효자·열녀등 모범이 되는 사람을 표창하고자 그 사람이 사는 마을 입구(旌閭)나 집 문앞(旌門)에 세웠는데 그 붉은 문을 작설(綽楔) 또는 홍문(紅門)이라고 하였으며, 항간에서는 이를 홍살문이라고도 하였다. 붉은 색으로 단장하며 '忠·孝·烈' 등의 글자를 새겨 표창의 종류를 표시하고 아울러 그의 이름이나 직함을 새긴다 정(旌)이란 깃

21) 이규태(1977), 「한국인의 의식구조」하, 문리사, p.333

발로서 최고의 찬양을 뜻한다. 효도하지 못한 사람이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고 뉘우쳐서 착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조정에서는 매년 연초에 이와 같은 사람을 조사하여 왕에게 아뢰어 정문을 세워주는 한편 복호(復戶)의 혜택을 주고 쌀이나 의복을 주는 등 특전을 베풀었는데, 이를 작설지전(綽楔之典)이라 한다. 復戶의 復은 면제한다는 뜻이고 戶는 호역(戶役)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復戶는 나라에서 호에 부과하는 호역의 부담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절차나 제도가 처음에는 장엄하고 복잡하였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심사규정도 점차 간소화되어 홍살문만 세워도 되기에 이르렀다. 즉 마을에 충신·효자·열부를 관에 보고하고 「완문(完文)」[22] 을 요청하여 그 집안의 부역을 면제케 하거나 암행어사에게 작설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 정려비(旌閭碑)를 세우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義士碑·孝子碑·烈婦(烈女)碑 등으로 나누어지며, 대개 문중에서 건립한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사상 아래서 크게 유행하였다. 비문은 사적과 칭송이 그 주요 내용이 된다. 그 가운데 충신 열사와 관련된 비는 사당이나 단소(壇所)에 부속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효자비와 열녀비의 경우, 대부분 길가에 세워졌었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 도로확장 등으로 파손되거나 방치되어 제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많다. [2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2) 조선시대 증명·허가·인가·명령 등의 처분 사안에 대해 당해 관청이 발급한 승인문서 - 두산동아세계대백과사전(19권), p 495

23) 한국이동통신 제주지사(1994), 「제주의 문화유산」,도서출판 탐라인, p76

2. 旌閭碑의 內容과 濟州人의 孝行

제주도 전역에 산재해 있는 효행에 관한 旌閭碑를 조사한 결과 총 50기였다. 그 내용을 유형에 따라 나눌 경우 수십 가지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斷指輸血, 哀毁之禮, 感天之孝, 食檢大便 , 獨身奉養, 順從之孝, 經血奉養, 口吮膿血, 讓位奉養, 代를 이은 孝, 夫婦旌閭, 金品寄附, 忠孝兼全, 孝烈兼全, 忠孝烈兼全등 15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비문을 해설하고 그 의의를 밝힌다.

서술 요령은 1)비문 2)비문해설 3)소재지 4)정려연도 5)참고자료 순으로 기술하였다.

1) 斷指輸血 奉養의 孝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입에 흘려 넣거나 또는 약과 함께 달여 먹여서 수명을 연장하게 했다는 사례로서 홍달한, 박창진, 현윤경, 김명집, 박명래, 문달민, 문정복, 이영조, 고달인, 박명복, 김홍조, 김효순등의 비문에 나타나있다. 특징적인 것으로는 9살의 어린 나이에 단지수혈한 고달인, 13세에 단지수혈한 이영조 이외에도, 남편을 위해서 단지수혈한 문철식처 고씨, 문명훈처 고씨, 진명서처 고씨등의 있다. 대표적인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효자 완산 이영조지려(孝子 完山 李永祚之閭)>

<碑文> 府君年十三歲奉侍母夫人楊氏方有艱疾藥不對症以斷上指出血灌口仍得回春自終天年面洞以孝行訴告于哲宗己未繡衣御史特下褒揚之典尊閣之完文斷指之褒恐有久遠之泯滅刻之石以寓世感慕之意 隆熙三年己酉冬不肖子 華泣血謹誌

<해설>孝子 李永祚는 府君의 나이 13歲때 어머니 楊氏의 병환으로 약을 썼으나 효험이 없어 손가락을 짤라 피를 어머니 입으로 수혈하니 回生하여 천수를 다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이 孝行을 관에 알렸더니 哲宗 10年(1859)에 暗行御使 沈東臣에 의하여 표창되어 完文이 내리니 이는 세월이 오래면 없어질까 염려되어 이를 後世에 전하노라.

(소재지) 구좌읍 종달리

(정려연도) 1859년

(비문해설 참고) - 「耽羅의 忠孝烈」(p.76) 「내고장 전통문화」, 「濟州忠孝

烈誌」, 「濟州先賢誌」

< 효자 통정대부 김효순지려(孝子 通政大夫 金孝順之閭)>

<碑文>公金海后人通政考諱宗仁之子也配全州李氏生興鉉興洙父母在堂定省養志其父病危篤○無回祈天禱地願以身代斷指注血涓涓灌口更生絶之命鄕隣咸称出天之孝自面里擧薦修報營庭己未年御史嘉尙之題三綱錄孝○完文荷立短碣以?伝焉 檀紀四二八九年丙申秋於洙源境

<해설>공은 김해후인이요 통정대부 종인의 아들이다. 아내 전주이씨 사이에 흥현 흥수를 낳았다. 부모님이 집에 계심에 정성과 양지의 효를 다하였는데 그 부친이 병에 위독하여 회생의 가망이 없자 천지신명에 대신 죽기를 빌며 손가락을 잘라 흐르는 피를 방울방울 입으로 수혈하니 거의 절명되었다가 소생하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하늘이 낳은 효자라 일컫고 마을과 면에서 이 사실을 보고하니 기미년 어사가 이를 가상히 여겨 삼강록에 올리고 효자의 완문이 내리었으므로 짤막한 비를 세워 길이 후세에 전하는 바이다.

(소재지) 한림읍 수원리

(정려연도) 1895년

(비문해설 참고) - 「耽羅의 忠孝烈」(p.64), 「내고장 전통문화」, 「濟州先賢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哀毁之禮의 孝

부모가 돌아가신후 3년간의 상례를 잘 치루어 정려 포양된 사례로서 홍달한, 강운, 이필완, 채광근, 조인철, 현재옥, 이계징, 고한철부부, 김영은처 한씨, 김홍복처 한씨, 조사창처 좌씨, 김맹윤처 김씨, 현재옥, 박창진동의 비문에 나타나 있다.

< 전력부위 강효자정려비(展力副尉 康孝子旌閭碑)>

<碑文> 夫孝道는人子之所當爲也니崇祖愛親이孝之始也라爲孝者는子盡職責이므로特有出天之孝則士林들이薦報하며政部에서褒賞함은古今一般矣라族姪智明은慨然于先代旌閭碑毁하야渡日問議重修于僑族則寅成氏贊助經費하니 智明이 還務其役하고 越山造余曰吾先祖孝子公이 旧有旌閭記나 玆關先系하니 莫非改記이라하며 懇請文之하니 余感其慕先之誠하야 謹按原稿則余嘗修譜時에 述之行錄이라 何辭再一

次리요 公의 諱는 運이요 康氏本貫은 信川이니……

<해설> 公의 이름은 運이요 本貫은 信川이니 元나라 재상 관정대훈공신 侯公의 후손이요 全羅監司 永公의 11代孫이며 通政大父 時漢과 烈女 礪山宋氏는 그 先親兩位시다. 公은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나 그 돈독한 성품을 어른들이 기특하게 여겼고 일찍 父親이 돌아가신 것을 항상 뉘우쳐 어버이를 잘 모시지 못한 옛 일을 생각하여 나이 53歲 되어 정성껏 힘써 묘자리 정하고 移墓를 한 후 護喪凡節 初喪祀를 갖추어 掌禮를 마친 뒤에 墓所옆에 초막을 지어 다시 3년 喪墓를 모시되 아침 저녁 문안드려 생전에 다하지 못한 孝道를 어버이에게 바쳐 奉養하니 주위 사람들의 슬픔을 자아내게 했고 그 사실이 面과 縣全域에 널리 알려져서기 1790년에는 三綱錄과 耽羅紀年이 信川康氏文獻錄에 特命 旌閭하였다. 7대손 智明은 先代旌閭碑가 낡아 보수하기 위하여 일본에 있는 6대손 寅成으로부터 결연비를 찬조받아 忠孝閣을 세웠다.

(소재지) 표선면 성읍리

(정려연도) 1780년

(비문해설 참고) - 「孝烈錄」, 「濟州忠孝烈誌」, 「내고장전통문화」, 「耽羅의 忠孝烈」(p.72), 「南濟州郡의 文化遺蹟」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통정 효자 조인철려(通政 孝子 趙仁哲閭)>

<碑文>公漢陽府院君涓之十三世孫也曾自幼時稟性純孝篤於事親扇枕之誠養志之供不庸極而及其丁憂事亡如事存謹護墓所風雷暴至必往哭拜節序時至饌品常陳常誦小學明倫篇不絶…

<해설>公은 漢陽府院君 涓의 13세 손이다. 일찍이 어려서부터 품성이 純孝하여 어버이를 섬기는데 扇沈의 誠 養志의 供이 지주하더니 돌아가신 후에도 생존시와 같이 묘를 지키며 暴風雷雨가 있을 때는 반드시 哭拜하고 饌品을 진설하여 제사를 지내었으며 항상 小學 明倫篇을 읽으며 어버이를 섬기는 정성이 늙도록 변하지 않으므로 마을 사람들이 우러러보더니 지난 辛酉年 즉 哲宗 12년(1861)에 이 사실에 대하여 本州 防禦使는 完文과 이에 綽楔之典의 사실을 비석에 새겨 여기에 碑閣을 세워 愚夫의 龜鑑으로 삼고자 함이다.

(소재지) 한림읍 수원리

(정려연도) 1861년

(비문해설 참고) - 「耽羅의 忠孝烈」(p.65), 「내고장 전통문화」, 「濟州忠

孝烈誌」

3) 感天의 孝

효성이 지극하므로 하늘도 감동하여 상식적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꿩을 얻은 사례로서 이필완, 박명래, 김광삼처 최씨가 있고 노루를 얻은 현원상, 배가 파선하자 이별하는 글을 적어 넣은 널빤지가 900리나 떨어진 자기집 앞에 당도하여 구조가 가능했다는 효자 박계곤의 비문이 남아있다.

가. 꿩을 얻은 사례

<충효 가선대부 이공필완지려(忠孝嘉善大夫 李公弼完之閭)>

<碑文> 夫忠孝人倫之大者也公以遺腹子事母至孝爲父追喪祭尊必誠其母逆終時居廬母墓至誠致祭母生時不食牛肉死後亦以雉鷄屬祭之一日墓祭求雉不得適有鷹而搏雉於墓前具膳而祭丙申大喪年踰八耋六月上京負土陵役勇力盡忠恩重几杖名振耽羅先祖追贈受官其忠孝卓異於斯可見故正祖朝特命旌焉 同治元年正月 日 一九六五年三月 日 重竪

<해설> 正祖 5年 (1781년) 朴天祥 御史에 의하여 포양(褒揚)되었음.

忠孝는 人倫의 大本이다 공은 유복자인데 어머니에 대한 효도가 지극하고 아버지를 위하여 追服하고 喪祭에 정성을 다 하였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니 무덤 옆에 廬幕을 지어 지성으로 제사를 지냈으며 어머니가 생존시 쇠고기를 아니 먹었으므로 죽은 후에도 꿩이나 닭으로 제사를 지내었다. 하루는 墓祭를 지내고자 꿩을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고 있던 중 때마침 매가 꿩을 치어 묘 앞에 떨어뜨렸으므로 이것으로 제사를 지내었다 丙申년 國喪 때는 나이가 늙었음에도 几杖의 은전을 내리어 耽羅의 이름을 떨쳤으며 선조에 대해서도 벼슬을 追贈받았으니 그 충효의 뛰어남이 이와 같으므로 正祖朝에 특명으로 旌閭되었다.

(소재지) 애월읍 금성리

(정려연도) 1781년

(비문해설 참고) - 「耽羅의 忠孝烈」(p.58), 「孝烈錄」, 「濟州忠孝烈誌」, 「濟州敎育沿革誌」(1)

나. 노루를 얻은 예

< 현원상(玄遠祥) >

玄遠祥은 애월읍 어도리에 살았는데 글을 읽고 덕을 닦아 어버이 섬기기에 지성을 다하였다. 어버이가 병이 나자 똥을 맛보며 병세를 가늠하였다. 어버이 喪을 당하자 슬퍼함이 법도를 넘었다. 삭전(朔奠) 절사(節祀)에는 반드시 목욕 재계하고 무덤에 가서 곡전(哭奠)을 하였는데 허루는 제수(祭需)를 얻지 못하여 통곡하였더니 노루 한 마리가 묘 앞에서 넘어지므로 이를 잡아 제찬을 갖춰서 제사를 지내었다. 순조22년(1822)에 아뢰어 정려되었다. (속수삼강록,탐라기년,증보탐라지)

(소재지) 애월읍 봉성리

(정려연도) 1822년

(비문해설 참고) - 「제주충효열지」(p.91), 「내고장 전통문화」, 「제주의 문화유산」,「孝烈錄」

다. 널빤지가 집 앞까지 표류한 예

<효자 박계곤지려(孝子 朴繼崑之閭)>

孝子 朴繼崑之閭　烈女 朴氏 之閭　忠婢高所樂之閭

上之十八年甲寅四月 命閭

<忠孝烈旌閭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上之十八年甲寅濟州　御使臣樂洙秦狀言州人朴繼崑其女朴婢高所樂孝烈忠宜旌異之典以敎若曰朴繼崑之感天孝誠誠島以北聞寄哉繼崑又有其女之爲烈婦烈婦又有忠婢孝烈忠共萃今繡衣就繼崑之閭旌之曰孝子烈女低一行扁忠婢之名仍選紀績之文俾州人過其閭乘者必式行者指点爲百代樹風聲命下州人相与咨嗟太息曰五州遠正化俗荒陋爲人所鄙今可有辭於海之北曠古恩榮朴氏豈專有也敦無興起臣旣奉命旌閭敍次爲文謹按朴繼崑州椽吏事父至孝赴京舡敗中洋羣泊無人孤嶼取敗板書訣語寄父從之海流距州三四百里未終日板到門前海岸父得之輕舟往

救庚子大喪倡島民越海…

※열녀 박씨지려(烈女 朴氏之閭) 충비 고소락지려(忠婢 高所樂之閭)와 같이 있음

<해설> 正祖 18년 甲寅年에 제주목사 沈樂洙가 아뢴 바에 의하면 제주인 박계곤과 그의 딸 박씨와 그의 몸종 고소락(高所樂)이 효와 열과 충이 있었다 하므로 정려하였다. 임금의 명에 의하여 정려하는 글을 삼가 생각하는대 박계곤은 주

리(州吏)일을 보면서 부모에 효성을 다했다. 하루는 서울로 가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던 중 배가 파산하여 겨우 무인도에 표착하였는데 파선된 배조각이 널판에 부모님과 결별하는 글을 써서 바다에 흘려보냈는데 주(州)와의 거리가 900리나 되는 곳을 날도 저물기 전에 문앞 해안에 표도(漂到)하였으므로 그의 아버지가 보고 배를 구해 구조하였다. 경자년(庚子年 1720) 국상(國喪)때는 능역(陵役)을 지원하는 도민을 인솔하여 몸소 일을 했다. 그의 딸 박씨는 남편이 일찍 죽었으나 평생 수절하고 몸종인 고소락(高所樂) 그 이름은 머리를 둥글게 말아 올린데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주인을 섬기며 시집도 가지 않고 '나의 주인이 열녀 행실이 있는데 어찌 남자와 같이 하리오'하며 60세 늙어 죽을 때까지 게으르지 않았으므로 그 효와 열과 충의 자취를 적는 바이다.

(소재지) 북군 애월읍 신엄리

(정려연도) 1794년

(비문해설 참고) -「孝烈錄」, 「耽羅의 忠孝烈」(p.56), 「濟州先賢誌」, 「濟州敎育沿革誌」(1)

4) 食檢大便 病看護의 孝

대변을 맛보아 병세를 가늠하여 치료의 대책을 세워 병구완을 했다는 사례로서 홍달한, 부천겸, 현원상, 조명윤처 김씨의 비문에 기록되어 있다.

< 충효인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유향좌수 제주향교도훈장 홍달한지려>

(忠孝人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留鄕座首 濟州鄕校都訓長 洪達漢之閭)

<碑文> 洪達漢旌義人也居於縣東之古城村幼喪父奉母窮居性忠孝誠懿無一豪私僞嘗屬名於武籍爲假卒卽縣官之軍校也未幾因親老家貧遂辭而去勞筋若骨奉養甚至體無完衣食不充腹而親之甘旨則無欠也其母嘗病屢歲洗沈綿朝父粥飮不和以蜜則不御而非此土所産故無以繼用君遂遍求玉称於隣里伐其幹而瀝其液調於米飮以助滋味及病篤嗾指出血和藥用之又嘗泄以驗差劇焉歲庚子夏値肅廟大喪君奔走号哭遂制衰以服之居癖之節如喪父母其家數喚地有山曰大朗……

<해설> 濟州 三邑중 旌義 현청은 지금의 성산면 고성리에 있었다. 홍달한 효자는 정의현 軍校였는데 제주 입도 시조 남양 홍씨 윤강(中訓大夫 司宰監 允康)의 11대 손으로 아버지는 穎吉이며 어머니는 광산 김씨로 顯宗 7년(1666)에 태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났다. 홍효자의 집안은 원래 선비의 후손이었으나 가정이 빈한했고 홍효자 여섯 살 때 아버지를 여의게 되었다. 이 후에도 홍효자는 부모에 대한 효심이 극진하였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 성읍리 정의향교의 훈장으로 추대받아 후생 교육에 열중하던 중 어머니 병환이 위독하다고 전갈을 받고 고향집으로 달려와 왼손가락을 깨물어 어머니 입에 피를 넣어 지성으로 봉양한 결과 72세의 천수를 누리게 했다. (대변을 맛보며 증세를 살펴보고-「남제주군의 문화유산」) (그는 매일 아버지의 똥을 맛보았다. 아버지의 똥은 날이 갈수록 단맛이 더해갔다. 똥냄새가 궂어야 오래 산다는데, 맛으로 미루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했다.-「제주의 전통문화」912쪽) 또한 홍효자 나이 55세 되던 1720년(肅宗庚子年) 6월에 숙종대왕이 돌아가시자 부모님 돌아가신 때와 다름없이 상복을 만들어 입고 송당리 지경에 있는 다랑쉬 오름에 제단을 만들고 초하루 보름 삭망 대상 담제 등 북향 분향으로 스스로 충효를 실천하여 그 칭송의 소리가 제주 삼읍에 널리 퍼졌다. 1733년 어사 沈聖希가 위의 사실들을 듣고 홍효자 집을 찾아가 조정에 보고하여 포상하도록 하고 復戶를 내리셨다. 1749년 83세로 세상을 떠난 홍효자에게 1764년 완문이 내려오고 정려문을 세웠는데 지금도 성산면 수산리 길가에 비각이 남아있다. 훗날 文人 烏川 鄭寶이 홍달한에 대한 전기를 써서 그 행장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소재지) 성산읍 수산리

(정려연도) 1733년

(비문해설 참고) - 碑文, 「濟州島誌」, 「제주의 문화유산」, 「孝烈錄」, 「耽羅의 忠孝烈」(p.74), 「南濟州郡의 文化遺蹟」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사가선대부 호조참판조명윤처 효부진부인김씨지정려>

(賜嘉善大夫 戶曹參判趙命允妻 孝婦眞夫人金氏之旌閭)

효부 김씨는 趙命允의 처이다. 金氏는 본래 천성이 어질고 온화했으며 행실도 고결하였다. 결혼한 후 시부모를 극진히 섬기고 남편을 존경하여 가정을 화목하게 하였다 불행히 남편이 일찍 죽자, 그녀도 따라 죽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시아버지의 나이가 연로하여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었으므로 마음을 고쳐 어려운 살림인데도 시아버지를 봉양하였다. 시아버지의 병이 위독하게 되자 대변을 맛보며 치료하고, 병이 낫기를 하늘에 빌었으므로 온 마을 사람들이 감복하였다. 이런 사실이 이웃에 알려져 온 마을 사람들이 감탄하였으며, 조정에서는

1891년(고종 28)에 그 효성을 기리기 위하여 旌門과 함께 孝婦碑를 세웠다.

(소재지) 표선면 성읍리

(정려연도) 1891년

(비문해설 참고) - 「濟州忠孝烈誌」, 「제주의 문화유산」, 「南濟州郡의 文化遺蹟」(p.160)

5). 獨身奉養의 孝

처자가 있으면 효도하는데 전심하지 못할까 두려워 장가를 들지 않고 홀로살며 부모를 공양한 사례로 진대석, 고윤문, 고한원등이 있다.

< 효자 진대석지려(孝子 秦大碩 之閭)>

<碑文> 軍校也早喪父奉母母有脚病坐立循人大碩入番則負來城中乞米供養退番則負行諸處必備所食育妻子則恐養母不專不娶獨居于執炊○崇禎七年旌門

<해설> 秦大碩은 軍校이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모친이 다릿병으로 앉고 서는데 사람을 기대여야 하므로 大碩이 당번을 설 때면 모친을 성중으로 업고 와서 양식을 얻어 봉양하고 退番하면 업고서 여러 곳을 다니며 반드시 奉養할 양식을 준비하였다. 妻子가 있으면 모친을 봉양하는데 전심하지 못할까 두려워 장가를 들지 않고 홀로 살며 손잡고 스스로 밥을 지어 공양하였으므로 崇禎 7年(仁祖 12年 1634년) 旌閭되었다.

(소재지) 애월읍 광령리

(정려연도) 1634년

(비문해설 참고) - 「孝烈錄」, 「耽羅의 忠孝烈」(p.62), 「濟州忠孝烈誌」

6). 順從의 孝

부모가 매를 들고 때릴 때에도 피하면 자식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하여 피하지 않은 사례로 고윤문의 비문에 잘 나타나 있다.

< 효자 고윤문지려(孝子 高允文之閭)>

<碑文> 七之十七年丙子十一月日命閭

妥以之後恐其板刻之易漫新磨片石以志永永世不朽云介

道光三十年五月日再從孫濟宗竪

<해설> 고윤문은 本州 頭毛里 사람이니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잘 모셨다. 牧子의 役을 맡아 나갈 적마다 쌀과 찬을 준비하여 드리고 돌아와서는 배고프고 안 고픔을 물어 배불리해 드림으로서 법도를 삼았으니 어머니는 성질이 조급하여 노여워하며 매를 들고 때릴 제라 어떤이가 피하라 하면 말하기를 어머니의 노여움이 한창이신데 만일 피하여 달아난다는 것은 자식의 도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노여움을 더한다 하여 피하지 않았고 혹은 아내를 얻도록 권하면 말하기를 아내를 가져 어머니 마음에 맞지 않으면 몸소 받드느니만 같지 못한다 하여 홀로 살았다. 純祖 14年 旌閭되다.

(소재지) 한경면 신창리

(정려연도) 1814년

(비문해설 참고) - 「耽羅의 忠孝烈」(p.66), 「孝烈錄」, 「濟州敎育沿革誌」(1)

7). 經血奉養의 孝

자기의 종아리 살을 베어 술에 타 먹여 어머니를 살렸다는 사례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효자 김칭 지려(孝子 金秤 之閭)>

<碑文> 本以記官在於官下問母疾甚卽走奉經血和酒進之復甦終養二十有年成化丁未旌閭 咸豊己未本里朴振改石閭

<해설> 孝子 金秤은 金寧 마을 사람이다. 金寧縣은 州에서 50 여리나 되는데 秤은 역관으로 官門에 있다가 어머니 머리에 종기가 생겨 氣絶을 했다는 말을 듣자 곧 갓을 벗고 맨발로 50여리를 단숨에 달려가서 자기의 살을 베어 어머니에게 먹였더니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서 마침내 20여년이나 더 살게 되었고 그로부터 金秤은 官職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폈다고 한다 그 일이 관가에 까지 들려 크게 칭찬을 내리셨다 한다 현재 서김녕리 대충동에 효자 朴明福 碑와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소재지) 구좌읍 서김녕리

(정려연도) 1487년

(비문해설 참고) - 「濟州島誌」, 「제주의 문화유산」, 「孝烈錄」, 「耽羅의 忠孝烈」(p.77), 「濟州忠孝烈誌」

8). 口吮膿血의 孝

시어머니의 등창병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어 낫게한 예이다.

< 처사 고영운처 효열양씨지려(處士高永雲妻 孝烈梁氏之閭)>

<碑文>氏貫耽羅憲廟乙未生也孝有大小烈有難易善養老孝之大者姑菽水之溫淸之節克敬後又痛疽口吮得差尤爲孝之大者善事疾痼夫無異寡居母欲奪志永矣麻他玄感至天本病回春一男一女繼絶興廢尤爲烈之難者戊寅本面草童山薦報州牧褒揚另賜酒肉文物燦然噫林總同胞天賦俱全後覽者宜於感興焉改造麗文謹立

<해설>梁氏의 본관은 耽羅이고 1835년(헌종 을미)에 태어났다. 孝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고 烈에도 어렵고 쉬운 것이 있지만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여 어려운 속에서도 즐겁게 해 드리고 철따라 따뜻한 옷 서늘한 옷으로 잘 섬기고 돌보았으며 또 등창병이 나자 입으로 빨아 낫게 하였으니 이는 크나큰 효도라 할 것이다. 남편이 장병으로 앓았으나 한결같이 간호하며 딴 마음을 먹지 않았더니 하늘이 감동하여 몸이 회춘됨은 물론 일남 일녀로 허물어지는 집을 일으켰으니 이는 가장 어려운 烈을 행한 것이다. 戊寅년 高宗 15년(1878년) 本面에서 천거하여 보고하니 本州 목사는 이를 포양하여 특별히 酒肉과 文物을 내리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 동포들은 착한 천성을 다한 것을 새기어 다음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일으키게 할 일인 것이다.

(소재지)애월읍 금성리

(정려연도) 1878년

(비문해설 참고) - 「耽羅의 忠孝烈」(p.60), 「내고장 전통문화」, 「濟州忠孝烈誌」

9). 讓位奉養의 孝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하여 관직이나 벼슬을 그만둔 사례로 김칭의 비문에 나타나 있다 - (20p 6. 經血奉養의 김칭 비문해설 참조)

10). 世傳의 孝

한 집안에 삼대를 이어 효부 효자가 나오고 아버지와 딸 그리고 딸의 몸종까지도 효행으로 정려된 사례로 하용우처 윤씨와 박계곤의 비문이 있다.

< 처사 하용우처 효열 윤씨지려(處士 河龍雨妻 孝烈 尹氏之閭)>

<碑文>氏籍波平士人尹公應連女晋州人河龍雨之妻也己自○○操行貞淑及冠于歸定省甘旨無異事親承順無違陰里歸化年○州餘奄○崩城之痛卽欲從殉翻然改悟奉舅撫幼克○於夫在日有子永進奉母益孝母病侍湯嘗○嘗茶無所不至及喪哭踊幾至滅性有○三○無非孝友長孫婦光山金氏箕燁之女嘗舅○医進茶極益孝誠無愧爲孝婦也一門三○宜有綽楔表宅鄕陰薦彰終受完文 故○立○閭以○不○之意焉事載五倫錄

<해설>氏의 본관은 坡平이요 선비 尹応連의 딸이며 진주 河龍雨의 부인이다. 이미 어려서부터 품행이 정숙하였으며 자라서 시집을 가서는 시부모 섬기기를 극진히 하고 남편에게 한결같이 순종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는데 나이 겨우 30여세에 갑자기 남편이 죽음에, 곧 따라 같이 죽고자 하였으나 늙은 시부모와 어린 것을 생각하여 마음을 고쳐먹고 시부모 봉양과 어린 자식 키우기를 남편 있을 때와 같이 하였다. 아들 永進이가 있었는데 모친 모시기를 극진히 하고 모친이 병이나자 약을 다려서 드리며 온갖 정성을 다 하였으나 돌아가시매 통곡하기 여러 날 실성하기에 이르렀다. 손자 셋이 있었는데 효도하고 애하지 않은 이 없었고 큰 손부는 光山 金氏 箕燁의 딸이었는데 시부모를 섬기고 병이 나자 약을 드리며 효성이 극진하여 부끄러울 바가 없는 효부였다. 한 집안에 삼대를 이어 효부 효자가 있었으므로 마을 사람들이 천거하여 완문을 받게 되었다. 삼가 비각을 세워 훌륭한 뜻을 전하고자 함이요 이 일은 「五倫錄」에 올라있다. 丙戌년(1946) 비를 세우다.

(소재지) 한림읍 수원리

(연도) 1946년 - 비 건립연도

(비문해설 참고) - 「내고장 전통문화」, 「濟州先賢誌」, 「耽羅의 忠孝烈」(p.9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1). 夫婦 旌閭의 孝

남편은 효자로 부인은 효부로 함께 정려된 사례로 고한철 부부가 있다.

< 효자 고한철 효부 전주이씨려(孝子 高漢喆 孝婦 全州李氏閭)>

<碑文>公士人配李氏居家淸貧奉侍老父盡修齊之道極晨昏至誠況瘡積年渴心誠藥兇飢吮瘡夙夜泣○○欲代命及其喪葬擗痛○○○○○各盡哀敬鄕里欽歎嘉乃之行面報官牒一室貞孝曰錫類闡揚卓異孝烈完文敢刻短碣以垂永世焉

同治壬戌 元月日 完文特下 大正辛酉 四月日 孫 千松 千鍾 千弘

<해설>公은 선비로서 夫人은 李氏이다. 집안은 가난하였지만 老父를 정성으로 모시고 修身齊家의 道를 다하고 晨昏至誠을 다하였으나 오랜 病으로 고통을 받자 약을 구하기에 온 정성을 다하고 看護하기에 침식을 잊어가며 아침 저녁으로 울며 대신 죽기를 원하였으나 그 상을 당하매 부둥켜 안고 가슴을 치며 슬퍼하다가 기절하였다. 다시 정신을 차려 葬禮를 정성껏 치렀으므로 마을 사람들이 우러러 찬양하였으며 面에서는 이를 천거하니 官에서는 哲宗 13년 (1862)에 한 집안의 旌孝를 찬양하여 뛰어난 孝烈을 褒揚하여 完文이 내렸으니 辛酉年(1921) 4월 碑文을 새겨 오래도록 敬意를 표한다.

(소재지) 한경면 신창리

(정려연도) 1862년

(비문해설 참고) - 「耽羅의 忠孝烈」(p.67), 「내고장 전통문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2). 孝行 및 金品寄附의 사례

효행은 물론이고 마을을 위해서 금품을 기부하여 정려된 예로 고정언처 장씨와 강명봉처 고씨가 있다.

< 사인(士人) 강명봉(姜明鳳) 妻 高氏 孝烈牌>

<碑文>昔蔡人妻 宋人女也 旣嫁夫 有恶疾父母欲改嫁之 女曰 夫之不幸乃妾之不幸 況適人之道 一與之醮 不可改也終養夫疾摩他晦菴夫子 編入小學書中以萬世婦女今於濟州奉盖里 高氏卓行益見藝性之 不以古今有殊也 高氏耽羅古族 曾大父諱益老大夫諱受祿 父應祉嘉善 妣嘉善妣金海金氏…

<해설>옛날에 채씨 아내 송씨의 정절을 기특하게 여겨 이름 높이 찬양하고

후세교육을 위하여 그의 정절을 소학책에 펴 넣어 만세에 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높은 덕행과 정절을 남긴 효열 고씨가 있으니 그녀는 삼강오륜의 도를 지키며 변치 않은 절개로 살았었다. 그녀는 16세에 진주강씨에게 시집을 갔으나 석 달만에 남편이 눕게 되자 정성으로 40여년을 꾸준히 보살피며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시고 조상의 제사를 정성껏 받들었다. 또한 근면·검소한 생활로 재산을 모아 어려운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가므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관으로부터 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보서당(봉개교 전신)을 세우는데 300여원을 기부하였는데 그 정절과 효행은 송씨와 더불어 찬양할 바이므로, 고씨의 높은 행적을 후세에 귀감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죽산 안택승씨의 도움을 받아 온 주민의 마음을 모아 효열비를 세워 그 뜻을 길이 빛내고자 한다.

(소재지) 제주시 봉개동 봉개초등학교

(연도) 1935년 - 비 건립연도

(참고문헌) - 碑文, 「濟州忠孝烈誌」, 「봉개교 향토지」(p 36)

13). 忠孝兼全 사례

충과 효를 겸비하여 정려된 예로서 홍달한, 이필완, 문정복, 송경천3부자등이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충효 송경천 의명 인명 삼부자지려(忠孝 宋擎天 義明 仁明 三父子之閭)>

<碑文> 忠孝全於一門公之三父子也公礪山人府院君正嘉公諱瑞二十二世孫也正祖朝甲寅年事大無蒙天朝賑恤之泥渾家뇌生公微衷欲報涓埃有志無時弟当魚脯進上之節以素願挺身山海二子亦同舟陪往忽遇獰風탕樣於中洋二旬幾次險傾公正衿危坐束脯尤謹心存芥誠而已二子待側祝文求命讌泊於蘇州府界還婦之路公以年老又脩心於路不幸鳳凰城則兄弟泣血抱屍或擔或負山海萬餘里婦葬於先隴之側一如礼制面里民等報一時제發州牧加完文士林有薦壬午御使褒揚于上列聖朝盛典光籍赫赫豈可以一私筆公榮哉 戊辰二月 日 修理旌門

<해설> 충과 효가 일문에 온전함은 公의 삼부자이다 공은 여산 송씨부원군 正嘉公 瑞 二十二世孫이다. 정조 갑인년 1794년 큰 흉년에 조정 구휼의 큰 은혜로 온 집안이 큰 일 없이 지나게 됨에 따라 國恩에 보답하고자 뜻을 품었으나 기회가 없던차에 어포 진상을 하게 되자, 본래부터 소망하던 차라

솔선하여 두 아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홀연히 태풍을 만나 표류하기 二旬 몇 차례의 위험한 고비를 만났으나 공은 옷깃을 바로하고 정좌하여 진상물을 동여매여 삼가는 마음이 지극하니 곁에서 두 아들은 삼가 하느님께 구명을 축원하더니 중국 소주 지경에 다다르게 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公

은 年老하여 마음을 가다듬었으나 불행히 봉황성에서 죽었으므로 형제는 시체를 부둥켜 안아 통곡하며 혹은 메고 혹은 업어 산과 바다 만 여리를 돌아와서 선영의 옆에 장사를 지내니 면과 마을 사람들이 다같이 이 사실을 알림에 본주 목사는 완문을 내리고 士林들도 천거하니 임자년 1852년 어사가 이를 포양하여 임금께 알리는 영광을 입었으니 찬란하게 빛나도다. 이는 어찌 사사로운 일이겠는가 공의 영광을 위해 적은 바이다.

(소재지) 북제주군 애월읍 금성리

(정려연도) 1822년

(비문해설 참고) - 「耽羅의 忠孝烈」(p.21), 「濟州忠孝烈誌」, 「제주의 문화유산」, 「내고장 전통문화」

14). 孝烈兼全 사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효와 열을 겸비하여 정려된 예로서 김료관처 이씨, 고선옥처 현씨, 고영운처 양씨, 강명봉처 고씨, 김맹원처 김씨, 김광삼처 최씨, 하용우처 윤씨, 문철식처 고씨, 박성림처 오씨 김홍복처 김씨, 김창백처 강씨, 강응주처 김씨, 김창은처 김씨, 오경인처 고씨, 문명훈처 고씨, 조명윤처 김씨, 김영은처 한씨, 조사창처 좌씨, 고붕익처 한씨, 조사창처 좌씨, 진명서처 고씨등의 사례가 있다.

< 처사 김창은처 효열 경주김씨지려(處士 金昌銀妻 孝烈 慶州金氏之閭)>

<碑文> 嗚呼烈哉大婦人之儀敬貞者也順以事人易死以從人難矣烈婦金氏慶州后人南彩之女也年十八嫦于羅州后人金昌銀之家而同居七年孝事祖舅姑及舅姑而甘旨適口一念汲汲則聞之兒之者莫不称嘆矣及其夫病篤也饘粥必親煮湯藥必自嘗痛若在己祝天禱神願以身代而大賦有限病未脫危戊申三月二十八日因遂致命則哀毁罔措四月初二日殯返婚之後…

<해설> 아! 슬프고 애닯도다 이 烈婦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온순하고 곧은 인품이다 모든 사람을 섬기고 죽음을 쉽게 하여 사람이 뒤를 따름이 어려운지

라 본인은 慶州后人 南采의 딸로 태어나 18세에 羅州后人 金昌銀에게 결혼하여 7년을 함께 살고 祖父와 시부모에게 효성이 극진했고 모든 음식마다 구미에 맞게 정성 다해 드렸으니 듣는 이 보는 이마다 경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남편이 병이 들자 자신이 음식을 꼭 지어 올렸고 탕약은 반드시 맛을 보며 그 아픔이 내 몸에 있음 같이 하늘에 빌고 신령께 빌며 내 몸이 대신하기만을 원했다. 그러나 병은 위태로움을 벗어나지 못하여 戊申年 3월 28일 다시 못 올 저 세상에 돌아간 즉 서럽고 애통함을 금할 수 없었다. 같은 해 4월 초 2일 남편 출빈하고 返魂한 후에 4살된 어린 아들 萬衡을 안고 슬피 울며 가로되 너는 꼭 이 집을 보살피고 대를 이어라 나는 지하로 갈 시간이 급하다 하여 조용히 밤중에 들어 상띠로 목을 메어 생을 버리고 옳은 길을 따르니 그 거룩한 마음은 그름을 가르고 곧은 마음은 세상 사람을 깨웠다. 남편 장사일에 大靜縣監 張公이 보고하여 그 영에 제사하고 濟州牧使 李公이 또 마을 보장에 의하여 이 길을 빛냈으며 甲寅年에 어사 심啓達이 임금 앞에 아뢰어서 온 도민으로 하여금 이를 존경하고 본받도록 널리 전도했다.

(소재지) 서귀포시 중문리

(정려연도) 1794년

(비문해설 참고) - 「孝烈錄, 耽羅의 忠孝烈」(p.101), 「중문향토지」(불란지야 불싸지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학생 문명훈처 효열 고씨지려(學生 文明訓妻 孝烈 高氏之閭)>

<碑文>嗚呼休哉夫孝烈眞出天性而常人之所不得行者也惟高氏耽羅王子后諱宗彦女適于文明訓家素淸貧婦功斯勤養舅姑旨常具臨喪祭盡力專致而且夫病革禱天願代意以斷指灌血于口遂使殞之命便成更生終得偕老而鄕党已称

孝烈焉高宗甲申春面薦与鄕儒狀一時併報于營府則特賜褒善之完文已久矣於斯追略顚末以俟夫鑑之日之

<해설>孝烈이란 참으로 하늘이 낳은 성품이지 보통 사람으로서는 행하지 못할 일인데 오직 高氏는 耽羅 후인 高宗彦의 딸로 文明訓에게 시집왔는데 본래 집이 가난하였지만 부지런히 일을 하여 시부모를 정성껏 모셨으며 돌아가시자 장례와 제사도 극진하였다. 남편의 병이 위독하자 천지신명에게 빌기를 다하며 대신 죽기를 기원하였으나 그래도 위태롭게 되자 손가락을 짤라 입으로 수혈하니 목숨이 또다시 살아나 평생을 늙도록 같이 살았다. 高宗 甲申年(1884년)에 面과 마을

儒林들이 관에 보고하자 특별히 착함을 포양하여 完文이 내렸다. 이에 이러한 사실을 간추려 전말을 적어 후일에 귀감으로 삼고자 함이다.

(소재지) 애월읍 납읍리

(정려연도) 1884년

(비문해설 참고) - 「耽羅의 忠孝烈」(p.92), 「내고장 전통문화」

15). 忠孝烈兼全 사례

충과 효와 열을 겸전하여 정려된 사례로 박계곤, 고정언처 장씨의 비문이 있다.

< 통정대부 고정언처 충효열 장씨지려(通政大夫 高廷彦妻 忠孝烈 張氏之閭)>

<碑文>氏仁同人也憲宗庚子生幼有善行長有卓節其夫病劇祈天身代天不假年哀瘠過度老姑在堂供無不至及其命終一從礼制丁未國用捐金寔爲烈於夫孝於姑忠於居也光武十一年本面里齊草童山加褒揚噫三德已全惟有女士之風焉改造麗文謹竪

<해설>張氏의 본관은 仁同이고 1840년(헌종6년)경자년에 태어났다. 어려서 선행이 지극하고 자라서는 뛰어난 절개가 있으니 그의 남편이 병이 위독하자 대신 죽고자 하늘에 빌며 따라 죽고자 하였으나 늙은 시어머니가 집에 있었으므로 정성스러이 봉양하다 명이 다하자 예제에 따라 장사를 지내었으며 1907년에는 國債報償의 말이 나자 家裝을 팔아 돈을 기부하였으니 이는 남편을 위하는 烈이요 시어머니에는 孝요 나라에 대해서는 忠이다. 1907년 면과 마을에서 모두 진언하게 되니 군에서는 이를 포양하였다 이 세가지의 덕이 온 몸에 지녔으니 어찌 여장부 풍도가 아니겠는가

(소재지) 애월읍 금성리

(정려연도) 1907년

(비문해설 참고) - 「내고장 전통문화」, 「耽羅의 忠孝烈」(p.59), 「濟州先賢誌」

Ⅳ. 旌閭碑의 分類와 敎育的 意義

효행으로 旌閭 褒揚된 인물의 행적을 기록한 각종 문헌들을 조사한 결과 모두 50기의 비가 효행에 관한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그 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표-1>효행비 일람

孝子·孝婦碑	孝烈碑	忠孝碑	忠孝烈碑
김칭(金秤)	김창백(金昌白)妻 姜氏	홍달한(洪達漢)	高廷彦妻 張氏
진대석(秦大碩)	강응주(姜應周)妻 金氏	이필완(李弼完)	
강운(康運)	김창은(金昌銀)妻 金氏	송경천(宋擎天)三父子	
박계곤(朴繼崑)	김광삼(金光三)妻 崔氏	문정복(文廷福)	
채광근(蔡光謹)	김흥복(金興福)妻 金氏		
현윤경(玄胤慶)	오경인(吳慶仁)妻 高氏		
고윤문(高允文)	고영운(高永雲)妻 梁氏		
부천겸(夫千謙)	문철식(文哲式)妻 高氏		
현원상(玄遠祥)	문명훈(文明訓)妻 高氏		
고한원(高漢元)	박성림(朴成林)妻 吳氏		
김명집(金明集)	조사창(趙仕昌)妻 左氏		
문달민(文達敏)	고붕익(高鵬翼)妻 金氏		
이영조(李永祚)	김맹원(金孟元)妻 金氏		
김흥조(金興祚)	강명봉(姜明鳳)妻 高氏		
조인철(趙仁哲)	하용우(河龍雨)妻 尹氏		
고한철(高漢喆) 夫婦	고선옥(高善玉)妻 玄氏		
고달인(高達仁)	김려관(金麗官)妻 李氏		
조명윤(趙命允)妻 金氏	진명서(秦明瑞)妻 高氏		
김효순(金孝順)			
김영은(金永恩)妻 韓氏			
이계징(李啓徵)			
현재옥(玄才玉)			
김두현(金斗鉉)			
박명복(朴明福)			
강인홍(姜仁洪)			
박명래(朴明來)			
박창진(朴彰振)			
27기	18기	4기	1기

孝子碑 24기, 孝婦碑 3기, 孝烈碑 18기, 忠孝碑 4기, 忠孝烈碑 1기이다 이를 남녀별로 분류하면 남성에 대한 정려비가 27기, 여성에 대한 정려비는 24기이다. 곧 남녀에 따른 효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도서관 UNIVERSITY LIBRARY

1. 旌閭碑의 분류

가. < 표-2 > 정려된 연대에 따른 분류(★표는 현존하는 비)

정려 년도	인물	정려 년도	인물	정려 년도	인물
1413	高得宗	1822	★宋擎天3父子	1891	★조명윤처김씨
1413	文邦貴	1822	강세억	1894	문일홍처이씨
1430	梁深	1822	고영도처강씨	1895	★金孝順
1431	金庇	1822	★김광삼처최씨	1897	김자현처김씨
1487	★金秤	1829	愼致得		
		1833	★고한원		
		1833	송계호처김씨	1900	★金永恩妻韓氏
1624	吳夢悅	1841	★김명집	1900	★박성림처오씨
1634	★秦大碩	1841	★김홍복처김씨	1901	★조사창처좌씨
1699	高贊元	1843	★오경인처고씨	1904	김종은
		1846	강여신	1904	★이계징
		1851	★문달민	1904	★高鵬翼妻 金氏
1733	★洪達漢	1854	★문정복	1907	좌시우
1780	★康運	1855	김치화	1907	★고정언처장씨
1780	★김창백처강씨	1859	★이영조	1911	★김맹원처김씨
1781	★강응주처김씨	1860	김광숙	1922(비 건립연대)	★현재옥
1781	★李弼完	1860	김광호	1931(비 건립연대)	★박명래
1794	★朴繼崑	1860	★김홍조	1935	★강명붕처고씨
1794	★김창은처김씨	1861	★조인철	1940(비 건립연대)	★김두현
		1862	★고한철부부	1946(비 건립연대)	★하용우처윤씨
		1865	김재명	1955	★박명복
1800	★蔡光謹	1869	★고달인	1963	★강인홍
1814	高鳴鶴	1874	임성언	1963	★고선옥처현씨
1814	★玄胤慶	1878	김재옥처허씨		
1814	★高允文	1878	★고영운처양씨	미상	★박창진
1822	李喬新	1881	★문철식처고씨	〃	★김려관처이씨
1822	★夫千謙	1882	任在發	〃	★진명서처고씨
1822	★玄遠祥	1882	고영학모강씨		
1822	李種應 夫婦	1882	현상관처김씨		
1822	김순구	1884	★문명훈처고씨		
1822	한광혁모강씨	1885	김치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1300년대 이전에 효행으로 정려된 기록이나 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1400년대에 이르러 5명이 효자로 정표 되었다.

1500년대에 효행으로 정려된 인물은 조사되지 않았다. 다만 1577년 곽지의 열녀 김천덕의 문을 정표했다 [24]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이어 1600년대에는 3명이 정표되었고 1700년대에는 8명이 정표되었으며 18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집중적으로 (45명) 정려 표창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부터 적극적으로 서민교화(庶民敎化)사업을 벌여 제주도에서도 광범위한 사회교육활동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정문정책(旌門政策)을 통한 효자나 열녀에 대해 포상이 계속되었고 서민들의 풍속을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무속(巫俗)을 근절시키기 위한 사회교육적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25]

"조선시대는 국가시책으로 개국 초기부터 광범위한 서민 교화사업이 추진되었다. 제주도에서는 3년상을 지낸 사람들에게 포상함으로써 서민들에게 가례(家禮)를 보급하였고 성리학의 기본 원리서인 『소학』을 간행 배포하였다. 학교에서도 석전제(釋奠祭)와 같은 교화행사를 펼치고 극적인 효행이나 절행의 모범을 보인 효자나 열녀들을 꾸준히 정려하고 포상함으로써 성리학적인 예약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정문정책(旌門政策)을 펼쳐나갔다." [26] 는 기록에도 나타나 있다.

특히 1832년 2월에 본도에 부임했던 한응호(韓應浩) 겸방어사(兼防禦使)의 명으로 만들어진 효열록(孝烈錄)에는 孝子 26인, 孝婦 5인, 烈女 27인, 義士 3인의 순으로 합계 61인의 행적을 수록 [27]하는 등 1800년대에 들어서 많이 정려 표창되었음을 볼 수 있다.

---

24) 제주도교육위원회(1987), 「제주교육 연혁지(1)」, 일신옵셋인쇄사, p.548.
25) 제주교육박물관 1층 제1전시실 「조선시대의 교육」 안내문
26) 위의 곳 「조선시대의 사회교육」 안내문
27) 고창석 역(1997), 「제주교육박물관 자료집(1) 효열록」, 제주교육박물관, p.9.

나. < 표-3 > 비 소재지에 따른 분류

소재지		효행 인물	계	비고
제주시		◎영평동-부천겸. ◎봉개동-강명봉처고씨	2	
서귀포시		◎중문동-김창은처김씨	1	
북제주군	애월읍	◎신엄리-박계곤 ◎광령리-진대석 ◎금성리-이필완 고영윤처양씨,송경천삼부자. 조사창처좌씨,김창백처강씨 고정언처장씨 ◎납읍리-문명훈처고씨 ◎봉성리-현원상 ◎고성리-고한원 ◎고내리-문철식처	14	
	한림읍	◎수원리-김두현,김효순,하용우처윤씨 김홍복처 고봉익처김씨 ◎귀덕리-김광삼처,김려관처이씨,김명집 조인철, 김맹원처김씨 ◎대림리-김홍조.	11	
	한경면	◎신창리-고윤문,고한철. ◎용수리-진명서처 ◎산양리-고선옥처	4	
	구좌읍	◎종달리-이영조 ◎김녕리-김칭,박명복 ◎월정리-김영은처한씨	4	
	조천읍	◎북촌리-채광근 ◎신촌리-이계징	2	
	우도면	◎서광리-고달인	1	
	추자면	◎영흥리-박명래	1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문정복,문달민 ◎영락리-강인홍 ◎구억리-박창진 ◎신평리-박성림처오씨	5	
	안덕면	◎덕수리-현재옥 ◎창천리-강응주처김씨	2	
	표선면	◎성읍리-강운,조명윤처김씨	2	
	성산읍	◎수산리-홍달한,현윤경,오경인처고씨	3	총50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근래에 들어 개발의 열기로 인하여 대부분 마을 입구나 길가에 세워졌던 효행을 기록한 碑들이 파손되고 방치되거나 망실되어 시지역에서는 몇기 발견되지 않았으며(3기) 대부분 북제주군(37기)과 남제주군(12기)에 많이 남아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孝行事例別 分類

현존하는 효행비는 물론 비의 존재여부는 미상이나 기록에 나타나있는 효행 인물들의 구체적 효행사례를 총 망라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표-4 > 효행사례별 빈도수

	효 행 사 례		빈도수		비고
1	斷指輸血 奉養의 孝		33		
2	感天의 孝	꿩을 얻음	5	21	
		물고기 얻음	5		
		꿈에 계시를 받음	4		
		노루	1		
		전복	1		
		부엉이	1		
		까치	1		
		자순(메추라기)	1		
		선약	1		
		널빤지 집앞까지 표류	1		
3	世傳의 孝(대를 이은 효행)		15		
4	食檢大便 病看護의 孝(대변을 맛봄)		12		
5	哀毁之禮의 孝(삼년상을 잘 치름)		10		
6	불구의 몸을 잘 모심		10		
7	금품 기부		10		
8	양부모 잘 모심		4		
9	獨身奉養의 효		3		
10	斷髮의 孝(머리 자름)		3		
11	口吮膿血의 孝(고름을 입으로 빨아냄)		3		
12	讓位奉養의 孝(벼슬 사양)		1		
13	經血奉養의 孝(종아리 살 베어 먹임)		1		
14	順從의 孝(매를 때려도 피하지 않음)		1		
15	신문고 울림		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1). 斷指輸血 奉養의 孝

손가락을 베어 그 피를 먹여 소생케 했다거나, 손가락을 베어 피를 내고 그 피를 약물과 함께 타서 드렸다든가 하는 斷指 수혈 하였다는 사례가 무려 33명이나 된다 9세 또는 13세의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 단지 수혈하는 효행을 보였는가 하면 주로 왼손가락을 잘랐다는 기록이 많이 보인다 남편을 위해 단지 수혈한 사례도 많으나 그것은 孝行이라기 보다는 烈行이므로 제외하였다. 그 구체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①김효순(金孝順) - 부친이 병으로 위독하게 되자 天地神命에게 대신 죽기를 축원하면서 손가락을 짤라 수혈하였더니 이미 절명상태에 있던 부친이 소생하여 얼마간 연명하였다.(碑, 내고장 전통문화34p, 속수삼강록)

②문달복(文達福) - 어머니가 위독하자 손가락을 잘라 그 피로 소생시켰다. (碑, 남제주군의 문화유산 146p) ※제주충효열지에는 文廷福으로 기록됨

③ 문달민(文達敏) - 1851년 11월 부친이 위독하자 손가락을 잘라 그 피로 소생시켰다.(碑, 남제주군의 문화유산 147p)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④홍달한(洪達漢) - 어머니의 병환이 위독하자 손가락을 베어 피를 내고 약물을 타서 드리니, 어머니의 병환이 회복되었다.(碑, 속수삼강록, 탐라기년, 효열록22p)

⑤이영조(李永祚) - 나이 13세때 어머니 양씨의 병환으로 약을 썼으나 효험이 없어 손가락을 잘라 피를 어머니 입으로 수혈하니 回生하여 천수를 다하였다. (碑, 제주충효열지 95p)

⑥박명복(朴明福) - 21세 되는 해에 아버지가 사경에 이르자 斷指 수혈하여 한달여를 연명하다가 돌아갔다.(碑, 제주충효열지115p, 속수삼강록)

⑦박명래(朴明來) - 모친이 장차 죽게되자 손가락을 끊어 수혈하므로써 그 목숨을 연장하니 목사가 순시하여 포상하였으며… (碑, 속수삼강록)

⑧현윤경(玄胤慶) - 아버지의 병이 위독하였을 때는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여 생명을 연장시켰다.(碑, 남제주군의 문화유산150p,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⑨박창진(朴彰振) - 아버지가 병들어 누웠지만 잘 보살펴 드렸고 하루는 약의 효력이 덜어져 아버지 병환이 위급하자 손가락을 짤라 피를 먹여 6년간 목숨을 연명케 하였다(碑, 남제주군의 문화유산146p)

⑩고달인(高達仁) - 고종진의 큰아들 9세인데 섬 중에서도 외딴 섬 우도에서 태어나서도 하늘이 주신 타고난 양능이 있어 놀이를 한참 할 나이에 능히 효성을 다하여 그의 아버지 죽음 앞에 실오라기 같은 목숨을 잇게 하고자 지혈(指血)을 거듭 한 모금씩 마시게 하였으니 칼날에 끊긴 손가락이 애처롭다. (碑. 완문, 섬속의 우리279p)

⑪김명집(金明集) - 그의 부친이 병으로 거의 목숨이 끊어지게 되자, 왼손가락을 짤라 수혈하였더니 다시 소생하여 오래 생존하게 되었으므로 마을 사람들이 칭찬하여 효자로 천거하니 … (碑, 내고장 전통문화 31p)

⑫김홍조(金興祚) - 그의 부친이 병으로 죽게되자 손가락을 짤라 수혈하여 소생하도록 하였다.(碑, 내고장전통문화34p)

⑬김종은(金宗銀) - 아버지가 병을 얻어 위독함에 이르자, 종은은 손가락을 자르고 피를 내어 아버지의 입에 넣으니, 며칠을 더 연명하였다.(효열록28p, 속수삼강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⑭양종인(梁宗仁) - 나이 겨우 13살에 부모가 염병(染病)으로 모두 앓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병이 위독하여 갑자기 기절하자 종인은 홀로 병자(病者) 곁에 있다가 즉시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피를 내어 입에 넣으니 아버지가 곧 회생하였다.(효열록28p)

⑮진달열(秦達悅) - 어머니가 병을 얻어 대소변이 불통함에 이르니 즉시 왼 손의 무명지를 자르고 피를 내어 탕에 타서 드렸더니, 잠깐 사이에 대소변이 통하여 회생하였다(효열록29p, 속수삼강록) ※ 속수삼강록에는 진달홍(秦達興)으로 기록됨

⑯강봉한(姜奉漢) - 어머니가 병에 걸렸는데 백약이 효과가 없었다. 석 달이 되자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호흡이 불통하였다 봉한은 곧 왼 손의 두 번째 손가락을 자르고 피를 내어 입에 넣으니, 얼마 안 있어 기식(氣息)이 통하고 회생하여 영원히 쾌차하였다.(효열록29p)

⑰송경훈(宋京勛) - 아버지가 병을 얻어 여러 달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악화되어 언어가 통하지 아니하자, 경훈은 손가락을 자르고 피를 내어 아버지의 입에 넣었는데, 3일을 연명하였다. (효열록29p)

⑱송응규(宋膺奎) - 아버지가 병을 얻은 지 5,6개월에 의약이 효과가 없어 마침내 숨이 곧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다. 응규가 즉시 왼 손가락을 자르고 피를 내어 입에 넣으니, 곧 회생하여 18일을 연명하였다.(효열록30p)

⑲양흡(梁翕) - 막 여역(疫)을 앓아서 어머니가 위독하자 흡은 곧 독한 病에서 일어나 손가락을 자르고 피를 내어 어머니의 입에 넣어 거의 끊어질뻔한 목숨을 연장하였다.(효열록30p)

⑳김광호(金光浩) - 그의 어머니가 병으로 눕자 백방으로 약을 구하여 치료하였으나 효험이 없었다 장차 운명하려 하자 왼손가락을 잘라 수혈하니 소생하여 연명되었다.(제주의충효열지96p, 속수삼강록)

이하는 내용이 비슷하므로 효행 인물만 밝히면 다음과 같다.

㉑김광숙(金光淑) - (제주의충효열지96p, 속수삼강록, 탐라기년, 증보탐라지)
㉒송경훈(宋京勛) - (제주충효열지102p, 속수삼강록)
㉓송응규(宋應奎) - (제주충효열지102p, 속수삼강록)
㉔이종운(李宗雲) - (제주충효열지103p, 속수삼강록)
㉕양서종(梁瑞宗) - (제주충효열지103p, 속수삼강록)
㉖고명길(高明吉) - (제주충효열지104p, 속수삼강록)
㉗김명운(金明運) - (제주충효열지109p, 속수삼강록)
㉘강준(康準) - (제주충효열지 108p, 속수삼강록)
㉙고여송(高汝松) - (제주충효열지109p, 속수삼강록)
㉚강항숙(康恒淑) - (제주충효열지109p, 속수삼강록)
㉛현능락(玄能洛) - (제주충효열지112p, 속수삼강록)
㉜조상칠(趙相七) - (제주충효열지110p, 속수삼강록)
㉝고운은(高雲殷)妻 康氏 - (제주충효열지169p, 속수삼강록)

2). 感天의 孝

효성을 다하기 위해 애쓰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 한 일도 하늘이 감동하여 이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어진다는 내용이 의외로 많아 21건이나 조사되었다. 꿈에 계시를 받거나, 매가 꿩을 데려다 줌으로써 祭需를 마련하고, 물고기나 까치 노루등이 나타난다든가, 혹은 전복이나 메추라기등도 등장하여 효에 대한 긍정이 강조되어 있다. 모두 11개의 구체적인 사례로 구분되었다.

가. 꿈에 계시를 받음

① 진달열(秦達悅 : 속수삼강록에는 秦達興으로 되어있음) - 어머니가 병을 얻어 대소변이 불통함에 이르니, 어찌할 수 없이 밤에 정원에 엎드려 하늘에 축원하며 연수(延壽)를 빌자, 백마에 탄 노인이 나타나 이르기를 "너의 어머니의 수명은 비록 다했지만 사람의 피를 쓸 것 같으면 거의 효과를 볼 것이다." 고 하였다. 달열이 일어나 돌아보니 백마노인은 없어졌다. 즉시 왼손의 무명지를 자르고 피를 내어 탕에 타서 드렸더니, 잠깐 사이에 대소변이 통하여 회생하였다.(효열록29p)

② 좌시우(左時祐) - 親喪을 당하자 心誠으로 葬地를 구하는데 꿈에 神翁이 吉地를 가루쳐 주었으므로 장사지내고 피눈물을 흘리며 뼈가 마르게 3년의 禮를 다하였습니다 (완문, 제주선현지370p)

③ 고명득(高明得)妻 崔氏 - 시아버지가 병으로 10년을누웠는데 백약을 구하여 간호하였으나 병세가 위독했다. 하늘에 축원하여 자기 몸을 대신하도록 빌었더니 비몽간(非夢間)에 신의(神醫)가 나타나 병세를 증험하고 부엉이를 달여 먹여라 하고는 없어졌다. 최씨가 목욕 제계하고 하늘에 축원하니 부엉이가 집에 날아 들어왔고 곧 이를 달여서 드렸더니 병이 곧 치료되었다.(속수삼강록, 제주의충효열지 159p)

④ 고찬원(高贊元) - '인두골(人頭骨)에 쌍룡수(雙龍水)를 먹이면 일주일 만에 빛을 찾는다'는 계시를 받고 젊었을 때 심한 안질로 봉사가 된 어머니의 눈을 뜨게 했다 조선 숙종때 효자문이 애월읍 고성리 극락오름 동남쪽에 세웠다하나 망실되었다.(1997,애월읍지 597p)

나. 꿩을 얻음

① 이필완(李弼完) - 그의 어머니가 나이 90살이 되어 임종하자, 육품(六品:祭需)은 반드시 꿩과 닭을 썼다. 하루는 葛祭에 쓸 꿩을 구하였으나 미처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홀연히 하늘에 있던 매가 무덤 앞에서 꿩을 쳐 떨어뜨리니, 이것으로 적(炙)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었다 (碑,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효열록23p)

② 김광삼(金光三)妻 崔氏 - 그 시아버지 忌日에 제찬을 마련하고자 돌아다니었으나 구하지 못하여 마음 조이며 돌아오는 길에 매가 갑자기 꿩을 치어 떨어뜨리니 이것으로 제사를 지내었으므로 마을 사람들이 효성의 소치라고 감탄하였다.(碑, 탐라의 충효열61p)

③ 박명래(朴明來) - 아버지가 병이나서 꿩고기를 먹고 싶다 하므로 하늘에 울면서 간곡히 빌었더니 다음날 꿩을 얻어 아버지에게 올렸고…(碑, 제주의충효열지 117p)

④ 김자현(金資鉉)妻 金氏 - 꿩이 막에 들어와 시부모에게 감지지공(甘旨之供)을 하게 되니 사람들이 모두 성효(誠孝)라 칭찬했다.(속수삼강록, 제주의충효열지 159p)

⑤ 홍정빈(洪廷彬)妻 宋氏 - 시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날에는 꿩이 부엌으로 날아드니 이것으로 제전(祭奠)을 치렀다. (속수삼강록, 제주의충효열지178p)

다, 노루를 얻음

① 현원상(玄遠祥) - 아버지 삭망과 명절에는 반드시 목욕재계하고 무덤에 엎드려 곡을 하였는데, 하루는 제주(祭酒)는 있으나 제찬(祭饌)이 없어 통곡하던 중에, 홀연히 노루 한 마리가 무덤 앞에 다가오므로 이를 잡아서 제찬을 갖추니 사람들이 이르기를 "효성의 감응(感應)이라" 하였다. (효열록27p, 속수삼강록, 탐라기년, 증보탐라지)

라. 물고기를 얻음

①송계호(宋繼豪)처 金氏-증조 시할아버지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자 맛있는 음식으로 그의 입맛을 맞추었는데, 엄동풍설(嚴冬風雪)에 먹을 생선을 찾으므로, 바닷가를 돌며 하늘에 축원할 때 갑자기 물마루를 보니, 백어(白魚)가 얕은 여울로 뛰어나오므로 급히 손으로 잡아서 국을 끓여 드렸다.(碑. 속수삼강록, 효열록32p)

②이종응(李鍾應) - 그의 아버지가 큰 종기(腫氣)가 나니 의원이 말하길 잉어를 먹으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 하였다. 때마침 한겨울이라 어찌할 수 없었으나 종응이 강가에 나가 울면서 하느님께 축원하였더니 별안간 잉어가 올라왔다. 곧 이를 잡아다가 드리니 효과가 있었다. (제주선현지362p, 속수삼강록)

③송재문(宋才文) - 본래 집도 가난하고 팔십의 老父도 앞이 어두워서 음식을 구별하지 못하였으나 재문은 남의 품팔이를 하면서까지 노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여 드라지 않는 것이 없었다. 喪을 당하자 장제(葬祭)는 반드시 예제(禮制)를 지키어 행했다. 제사를 모시는데 제수(祭需)가 없어서 바다에 나갔더니 고기가 뛰어올라왔으므로 이것으로 제사를 지내었다.(제주충효열지104p, 속수삼강록)

④문신복(文信福) - 아버지가 병이 나서 한 겨울에 회(鱠)를 먹고 싶다 하므로 신복이 바다에 나가 하늘에 축원하니 고기 한 마리가 뛰어 올라왔으므로 이를 잡아다가 공양하였다. (제주충효열지105p, 속수삼강록)

⑤홍정빈(洪廷彬)妻 宋氏 - 시아버지가 병으로 눕자 극진히 간호하는데 생선을 먹고 싶다 할 땐 한겨울에도 바다에 나가니 고기가 뛰어 올라와서 공양하였다.(제주충효열지 177p, 속수삼강록)

마. 전복을 얻음

①고명호(高明浩)妻 金氏 - 시아버지가 병으로 위급했을 때 일찍이 생복(生鰒)을 먹었던 생각이 나서 생복을 찾았다. 생복이 나는 절기가 아니었으나 그녀는 바다로 나가서 울면서 축원하니 거센 파도에 전복 조개 하나가 떠 왔다. 이것을 공양하니 차도가 있으므로 사람들은 효성이 감천한 것이라 하여 천거하고 … (제주충효열지155p, 속수삼강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바. 부엉이를 얻음

①고명득(高明得)처 최씨 - 시아버지가 병으로 10년을 누웠는데 약으로 쓸 부엉이를 잡게해 달라고 하늘에 축원하니 부엉이가 집에 날라 들어왔고 곧 이를 달여서 드렸더니 병이 곧 치료되었다. (제주선현지397p, 속수삼강록)

사. 까치를 얻음

①문신복(文信福) - 아버지가 병이나서 작혈(鵲血-까치)을 청하였는데 난데없이 까치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와서 이를 잡아드리니 효험이 있었다(제주충효열지105p, 속수삼강록)

아. 자순(紫鶉:메추라기)을 얻음

①趙相七 - 성품이 至孝하였는데 어머니의 忌日에 아버지가 갑자기 병을 얻어 위독하니 겨우 行祭가 끝나자 뜰을 깨끗이 청소하여 하늘에 자기 몸으로 대신할 것을 축원하였더니 자순(紫鶉-목부위가 붉은 메추라기)이 처마에서 떨어지므로 이것

을 고아서 드렸더니 회복되었다.(제주선현지372p, 속수삼강록)

자. 선약(仙藥)을 얻음

①이흥록(李興祿) - 어머니가 병으로 사경에 이르자 주야로 하늘에 축원하며 백방으로 약을 구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한 겨울의 눈덮인 산에 올라가 仙藥 10개를 얻고 와서 달려 드리자 차도 있었으므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효행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하여 천거하니 목사가 아뢰어 復戶되었다.(제주선현지370p, 속수삼강록)

차. 널빤지가 집 앞까지 표류

①박계곤(朴繼崑) - 서울로 가다가 바다에서 배가 부서졌는데 겨우 사람이 안 사는 외딴 섬에 닿았으므로 깨어진 널을 주워 이별하는 말을 쓰고는 아버지에게 부치니 海流를 타고 흘러가, 그 거리가 9백리나 되건만 저물기도 전에 그의 집 문앞에 닿았고 아버지가 이를 보고서는 가벼운 배를 내어가서 구하였다.(碑, 속수삼강록, 효열록, 旌閭記 正祖實錄)

3). 世傳의 孝

부부가 같이 정려되거나, 부자, 모자 또는 손자가 같이 정표된 예도 15건 조사되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①고한철(高漢喆)과 부인 李氏 - 고한철은 孝子로 부인 이씨는 孝婦로 정표됨(碑, 제주충효열지100p)

②烈女 礪山宋氏와 그의 아들 孝子 강운(姜運) - 어머니는 烈女로 아들은 孝子로 정표됨(碑, 속수삼강록, 탐라기년)

③하용우(河龍雨)妻 尹氏와 아들, 손자, 손부 - 그의 아들 永進이도 자라서 효성이 지극하여 손자 셋을 얻었는데 모두 효제(孝悌)하였다. 또 손부를 맞이하였으나 역시 가훈에 따라 효성이 지극하니 마을 사람들이 3대를 이은 효부 효자라 하여 천거하니 표창되었다.(碑, 내고장 전통문화42p, 오륜록)

④ 박계곤(朴繼崑)과 딸 朴氏, 딸의 몸종 고소락(高所樂), 외손 부천겸(夫千謙) - 박계곤과 그의 딸, 딸의 몸종은 忠孝烈로, 외손 부천겸은 孝子로 정표됨 (碑, 속수삼강록, 정조실록, 탐라기년)

⑤고성현(高星現)妻 姜氏와 증손 백련(百連) - 강씨는 孝婦로 증손 백련은 효자로

정표됨 (제주충효열지167p, 속수삼강록)

⑥현상관(玄尙寬)妻 金氏와 증손자 玄丁一 -김씨는 孝婦로 증손자 玄丁一은 효자로 정표(제주충효열지169p, 속수삼강록)

⑦부도황(夫道璜)妻 宋氏와 손자 夫士圭 - 송씨는 孝婦로 손자 부사규는 孝子로 정표(제주충효열지171p, 속수삼강록)

⑧김치화(金致和)와 딸 윤방언(尹邦彦)의 처 金氏 - 김치화는 孝子로 그의 딸 김씨는 烈女로 旌閭됨 (제주선현지406p,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⑨한억관(韓億寬)妻 康氏와 현손 승헌(承憲) - 강씨는 孝婦로 승헌은 孝子로 완문이 내림 (제주선현지409p, 속수삼강록)

⑩송양빈(宋壤斌)처 康씨와 손자 의렴(義廉) - 강씨는 孝婦로 의렴은 孝子로 완문이 내림 (제주선현지409p, 속수삼강록)

⑪김종집(金宗集)처 康씨와 아들 김필환(金弼煥) - 강씨는 孝婦로 김필환은 孝子로 완문이 내림(제주선현지 410p, 속수삼강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⑫이종응(李鍾應)과 부인 金씨 - 각각 孝子와 孝婦로 정표됨(제주충효열지91p, 속수삼강록)

⑬현능락(玄能洛)과 부인 吳씨 - 孝子와 孝婦로 마을에서 천거하니 완문이 내림 (제주충효열지112p, 속수삼강록)

⑭고운은(高雲殷)처 康씨와 장손 고치권(高致權) - 강씨는 孝婦로 旌閭되었고 고치권도 家訓을 이어받아 효행이 많다 하였다.(제주충효열지 170p, 속수삼강록)

⑮현홍길(玄興吉)처 康씨 아들 현재권(玄才權) - 강씨는 孝婦로 아들 재권은 효자로 정표됨 (제주충효열지170p, 속수삼강록)

4). 食檢大便 病看護의 孝

똥(糞)을 맛보아 병이 덜하고 더함을 가늠하여 치료의 대책을 세웠다는 사례도

12건이나 찾을 수 있었다.
① 홍달한(洪達漢) - 똥(糞)을 맛보아 병의 차도가 있고 없음을 증험하였다.(碑, 제주충효열지84p, 속수삼강록, 탐라기년)

② 조명윤(趙命允)妻 金氏 - 시아버지의 병이 위독하게 되자 대변을 맛보며 치료하고…(제주충효열지161p,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남제주군의 문화유산160p)

③ 현원상(玄遠祥) - 아버지가 병이 들매 침식할 겨를이 없었고, 심지어 변을 맛보아 병이 더하고 덜함을 가늠하여…(속수삼강록, 탐라기년, 증보탐라지, 효열록26p)

④ 부천겸(夫千謙) - 어머니가 간혹 위독할 때마다 반드시 변을 맛보아 병이 더하고 덜함을 가늠하였다.(속수삼강록, 탐라기년, 효열록25p)

⑤ 강여신(姜汝信) - 어버이가 병이나자 극진히 간호하며 그 똥을 맛보아 병세를 가늠했다.(고내리지, 제주선현지363p)

⑥ 김광숙(金光淑) - 어머니 신씨가 병이나서 눕자 2년 동안을 옷을 벗지 못한 채 밤낮으로 극진히 간호하며 똥을 맛보며 하늘에 축원하였다.(속수삼강록, 탐라기년, 증보탐라지, 제주충효열지96p)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⑦ 고명길(高明吉) - 천성이 純孝하여 어버이를 극진히 모시는데 80의 늙은 어머니가 돌림병을 얻어서 기절하자 약을 달여 드리고 똥을 맛보며 병세를 가늠했다.(제주충효열지104p, 속수삼강록)

⑧장룡(張龍) - 어버이를 섬기는데 정성감지(定省甘旨)의 봉양으로 지성을 다했다 아버지가 병으로 눕게되자 하늘에 기도하며 똥을 맛보아 병세를 가늠했다.(제주충효열지108p. 속수삼강록)

⑨강항숙(康恒淑) - 어버이에게 맛있는 음식이 끊기지 않게 하고 병이나면 약시중을 하면서 똥을 맛보아 병세를 가늠했다.(제주충효열지110p, 속수삼강록)

⑩현능락(玄能洛)妻 吳氏 - 천성이 정숙하고 성효(誠孝)하여 시부모가 병이 나면 똥을 맛보아 병세를 가늠했다(제주충효열지168p, 속수삼강록)

⑪ 강필홍(康弼弘)妻 高氏 - 늙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얼음을 깨어 고기를 잡아오고 눈이 덮힌 속에서 소채(蔬菜)를 구하였으며 병이 나자 간호하는데 똥을 맛보아 병세를 가늠했다.(제주충효열지173p, 속수삼강록)

⑫ 안경능(安景能) - 홀애비로 살면서 아버지를 봉양하는데 쌀을 빌어다가 밥을 지어드리고 병이 나면 약을 달여 등대하며 똥을 맛보아 병세를 가늠하니 … (제주충효열지 117p, 속수삼강록)

5). 哀毁之禮의 孝

부모가 사망한 뒤 삼년상 기간에 廬幕생활을 하는 일은 효성이 지극한 이들이면 흔히 따랐던 관습이다, 즉 상복을 입는 삼년 동안 부모의 무덤 옆에서 여막이라고 불리우는 임시 거처로서의 움막을 지어 생명을 부지할 만큼의 최소한의 음식만을 들면서 매일 상식을 올리고 곡을 하면서 생활하는 것이다.

나라에서 삼년상을 잘 치르도록 장려한 정책에 따라1400년대에 정려된 인물들은 모두 부모가 돌아가신 후 삼년상을 잘 치러서 효자로 정표되었다. 그 이외에도 효행으로 정려된 인물들의 대부분은 3년상을 정성을 다해 치렀다. 애훼지례(哀毁之禮)를 다했다는 기록이 많이 보인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① 고득종(高得宗) - 생원(生員)때 부친상을당하니 묘소 곁에 여막(廬幕)을 짓고 처음으로 3년의 服制를 행하여 한 고을이 감복하였으므로 제주 도안무사(都安撫使) 윤림(尹臨)이 아뢰어 정표되었다.(태종실록, 속수삼강록, 탐라기년, 제주의충효열지77p)

② 문방귀(文邦貴) - 직장(直長) 문방귀는 태종 6년에 부친상을 당하자 3년을 수분(守墳)하며 상제(喪制)는 가례(家禮)를 지키었으므로 제주에 이 기풍이 수립되어 수분자가 3인이요,3년 상을 행한 자가 10여인이나 되었다. 태종 13년 6월에 도안무사 윤림이 아뢰어 정표되었다. (태종실록, 제주의충효열지77p)

③ 김비(金庇) - 모친이 돌아가시자 여막을 지어 수분하고 몸소 흙과 돌을 지어다가 분묘를 꾸몄다. 대상(大祥) 담제의 제도도 한결같이 家禮에 준하였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그 효행에 감복하여 아뢰니 세종13년 10월에 효자로 정표되고 서용되었다 (세종실록, 제주의충효열지77p)

④ 강운(康運) -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 묘에 합장하고 그 곁에 여막을 지어

서 아버지를 위하여 삼년상을 추복(追服)하며 朝夕으로 곡전(哭奠)하였는데 초상제(初喪祭)와 다름이 없었다.(碑, 속수삼강록,중보탐라지,제주의충효열지89)

⑤채광근(蔡光謹) - 어버이의 喪을 당하니 3년간을 소식(蔬食)하며 상복을 벗지 아니하고 애훼지례(哀毁之禮)를 다했다.(제주충효열지87,증보탐라지)

⑥조인철(趙仁哲) - 묘곁에 여막(廬幕)을 지어 수묘하였다. 또 폭풍우나 뇌우(雷雨)가 있을 때는 반드시 성묘하고 곡배(哭拜)하였다. (碑, 제주충효열지97p)

⑦김치화(金致和) - 부모의 상을 당하자 묘 곁에 여막을 짓고 3년 동안 수분하였으므로 정표되었다. (제주충효열지99p, 속수삼강록, 중보탐라지)

⑧이계징(李啓徵) - 어버이가 병으로 눕자 하늘에 축원하며 자기가 대신할 것을 빌었다. 喪을 당하자 여막을 지어 哀毁之禮를 다했다.(碑, 제주선현지 367p, 속수삼강록)

⑨장룡(張龍) - 아버지 喪을 당하자 廬幕을 지어 3년간 哀毁之禮를 다했으므로 천거되어 완문이 내렸다. (제주선현지371p, 속수삼강록)

⑩현재권(玄才權) -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효심이 至純하여 어버이를 모시는 데 병이라도 나는 날이면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잠시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약을 달이면 반드시 맛을 보아 드렸다. 그 喪아을 당하니 哀毁之禮를 다하고 喪葬之祭에 誠力을 다하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효자라 칭찬하여 천거하자 완문이 내렸다.(제주선현지374p, 속수삼강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6). 불구의 몸을 잘 모신 효행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에도 감동적인 사례들이 많이 조사되었다, 맹인이며 절름발이인 시부모를 정성으로 봉양하는 사례, 자신이 맹인이면서도 부모를 잘 모시는 예 등 열 건을 찾을 수 있었다.

①강종득(姜種得)처 高씨 - 귀막고 앞을 못보는 시어머니가 있었으므로 시어머니 곁에서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잡아서 먹게 하고 밖에 나갈 때도 지팡이를 잡아서 앞에 인도하여 다니니 사람마다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제주충효열지 157p, 속수삼강록)

②강세평(康世枰)처 鄭씨 - 시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병이 있었는데 늙어서는 더욱 심하여 귀머거리가 되고 앞까지 못보게 되었다. 기거와 대소변을 모름지기 사람에 의지하여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없고 다녀야 하므로 철따라 사시절 깨끗한 옷을 만들어 입히고 효성이 지극하니 이 소문이 이웃 마을까지 전파되어 관에서 포상하고 복호하였다. (제주선현지401p, 속수삼강록)

③강완혁(康完赫)처 玄씨 - 앞을 못보는 시할머니와 시부모에게 冬溫夏淸하고 甘旨之供으로 극진히 모시며 婦道를 다하고 돌아가시자 哭泣祭奠하는 데 정성을 다하였다. (제주선현지401p, 속수삼강록)

④고재만(高才萬)처 玄씨 - 늙은 시부모 양친이 귀머거리이고 앞을 못보았으므로 모름지기 봉양하는데 힘을 다하였다. 또 병이 나면 백약으로 구환하고 禳을 꾸며 회생하기를 빌었다.(제주선현지401p. 속수삼강록)

⑤현상관(玄尙寬)처 金씨 - 80의 귀먹고 앞이 어두운 시아버지가 의탁할 곳이 없었으므로 굳게 참아 눈물을 씻고 20여년을 봉양하면서 甘旨之供과 定省之節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천거하고 완문이 내렸다.(제주선현지402p, 속수삼강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⑥김두행(金斗行)처 金씨 - 그 남편이 일찍 죽었으나 시아버지가 앞을 못보고 절름거리었으므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지척에서 갈력공양(竭力供養)하며 이순지이(鯉筍之異)가 있었으므로 모두 효열이라 칭찬하며 천거하였다. (제주충효열지 177p, 속수삼강록)

⑦양원방(梁元邦)처 姜씨 - 四肢를 못쓰는 불구의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자식을 잘 가르쳐 성가하게 하니 마을 사람들이 효부라 칭찬하였다(제주선현지411p, 증보탐라지)

⑧고명득(高明得) - 집이 가난한 처지에 아버지는 盲人이고 어머니는 다리병으로 움직이지 못하였다. 명득은 여기 저기서 구걸하면서도 어버이를 위하여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했고 백방으로 의원과 약을 구하여 시중했다 그 날쌔게 돌아 다니는 것이 매나 솔개가 참새를 잡는 것처럼 용맹한 의지가 있었으므로 마을 사람들이 이를 천거하니 목사가 아뢰고 정표하여 通政大夫를 제수하였다. (제주충효열지 105p, 속수삼강록)

⑨이재백(李才伯) - 천성이 지효(至孝)하였는데 10세 때 어머니를 여의고 그 아버지는 盲人이므로 바깥 출입을 못했다. 재백이 품팔이를 하면서 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했고 맛있는 음식이 모자라는 일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감탄하여 천거하니 완문이 내려왔다.(제주충효열지107p, 속수삼강록)

⑩현지화(玄智化) - 현지화는 자신이 盲人이었으나 성품이 순각했다. 老父가 병이 나자 앞을 보지 못하여 醫藥과 定省 甘旨를 못함을 한탄하며 정성을 다하여 친히 주야로 약을 달여 드리면서 간호했다. 喪을 만나자 葬祭하는데 哀毁之禮를 다하니 察理使 李奎遠이 지나가다가 그 효행을 가상히 여겨 完文을 만들어 주고 復戶하였다.(제주선현지373p, 속수삼강록)

7). 金品 기부 사례

효행은 물론이고 흉년이면 이웃에 쌀을 나누어 주거나. 가재를 기울여 마을 공동일에 앞장선다든가,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하여 연금을 낸 사례등도 10가지 조사되었다.

①고정언(高廷彦)처 張씨 - 광무11년(1907년) 국채(國債)보상을 위하여 가장(家裝)을 팔고 연금(捐金)을 내었다. (碑, 제주충효열지 165p)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②조사창(趙仕昌)처 左씨 - 1907년 국채 보상 운동이 벌어지자 선뜻 백량을 헌납하니 마을 사람 들이 감탄하여 천거하니 효부로 표창되었다. (碑. 속수삼강록)

③강명봉(姜明鳳)처 高씨 - 근면 검소한 생활로 재산을 모아 어려운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가므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관으로부터 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보서당을 세우는데 300원을 기부하였는데 그 정절과 효행은 … (碑, 봉개교향토지 37p)

④문치백(文致伯백)처 梁씨 - 시부모를 모시는데 甘旨定省으로써 정성을 다했다. 집안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였으나 國債 상환의 소식을 듣고 30꿰미 돈을 내놓았으므로 閨中婦人으로서 忠孝烈이 겸전된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니 군수가 포양하였다. (제주선현지394p, 속수삼강록)

⑤고명관(高明寬)처 左씨 - 國債 보상의 말을 듣고는 좋은 머리를 팔아 50금을 捐金하였다.몸을 던져 물에 빠진 남편을 구하였으니 烈이고 膿血을 입으로 빨았으니 효이며 연금을 내었으니 忠이라… (제주선현지400p, 속수삼강록)

⑥고재문(高載文)妻 金氏 - 천성이 貞淑하여 시부모를 모시는데 효양(孝養)을 다했고 돈목애휼(敦睦愛恤)했다. 또 양지(養志)로써 이웃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에 힘쓰어 매해 여유있는 곡식을 진휼(賑恤)했고 힘에 알맞게 베풀었으므로 마을 사람들이 仁과 孝가 겸전한 것이라 칭찬하여 여러차례 천거하였다. (제주충효열지 171p, 속수삼강록)

⑦강필홍(康弼弘)妻 高氏 - 늙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봉양하였다. 노년에 이르러 가재(家財)를 기울여 가난한 사람을 진휼(賑恤)하니 인성(仁聲)이 멀리까지 퍼졌다. 마을에서 천거하니 어사가 쌀과 고기를 주고 제주목사가 닭 두 마리를 주었다.(제주충효열지173p, 속수삼강록)

⑧좌시우(左時祐) - 나이 80이 되어 老病으로 누웠는데 홀연히 國債報償說을 듣고는 좌전(左傳) 춘추(春秋) 3도(都)와 부서책(賦書冊)을 모두 팔아서 105兩을 연납(捐納)했고 용감하게 마을 거리로 나가 북채를 잡고 북을 치며 忠義의 마음을 격려 고취하니 사람들이 기뻐하며 서로 앞을 다투어 捐金을 내었으니… (완문, 제주충효열지106p)

⑨조상칠(趙相七) - 관가에 재난을 당하니 千金을 捐出하였다. 문묘(文廟)에 비가 새니 보수하는데 돈 백 꿰미를 내놓아 수리하게 하고 보완부지(補完符紙)가 어려우므로 천속(千束)을 사주어 민폐를 막았다. 세상사람들이 효자라 천거하니 어사가 온 때 아뢰어 정표되었다.(제주충효열지110p, 속수삼강록)

⑩고재문(高載文) - 성품이 진효(眞孝)하여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는 데 정성을 다하였으며 나아가 어려운 백성을 보면 돈목(敦睦)하고 애휼(愛恤)하여 흉년을 당하면 육지에서 쌀을 사다가 나누어 주니 효와 義가 겸전하여… (제주충효열지111p, 속수삼강록)

8).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를 잘 모신 孝行

①신치득(愼致得) - 일찌기 어머니를 여의고 장성하도록 계모에 의해 양육되었는데, 계모의 뜻을 깊이 이해하였다. 이 때문에 계모에게는 이미 세 아들이 있었지만 오직 치득을 좇아 함께 살았다. 집이 본래 가난하였으나 힘써 자식의 직분을 다하고 음식을 얻으면 소매 속에 넣고 돌아와서 드렸다. 말년에 병이 깊어지자 치득은 아내와 함께 한 마음으로 성의를 다하여 계모의 아픔과 가려움을 누르고 긁어 드

렸으며, 눕고 일어나는 것을 부축해 드렸다. 약 시중을 드는 절차나 목욕시켜 드리는 일에 이르러서도 조금도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한지 거의 10년에 이르러, 어머니가 임종하자 남의 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땅을 정하여 장사를 지내고자 하였으나, 옛 산주(山主)의 말이 있으므로 치득이 말하기를, "남이 다투어 금하는 곳은 바록 법정에 나아가 이치를 깨닫는다 하여도 사람의 자식이 어버이를 위해 안장하는 도리가 아니다" 고 하여 다시 다른 곳을 정하여 장사지내었다.(효열록28p, 속수삼강록, 탐라기년, 증보탐라지)

②강인신(姜仁信) - 그의 계부(季父)가 무후(無後)하였으므로 자기 아버지와 같이 받들어 모시고 드디어 봉사(奉祀)하니 관에선 그 특이함을 포상하여 완문이 내렸다.(제주충효열지104p, 속수삼강록)

③오몽열(吳夢悅) -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모친이 돌아가시자 여막에서 3년 동안을 죽으로 때면서 哀毁之禮를 다했다. 그후 서모(庶母)를 섬기는데 부친의 생존 때와 다를바 없었으므로 인조 2년 5월에 목사가 아뢰어 정표되었다.(제주충효열지79p, 인조실록)

④강경기(康景琦) - 어려서부터 효행이 뛰어나더니 양부모(養父母)를 받드는 데 몸소 장작을 하여 오고 고기를 낚으며 온청지절(溫淸之節)과 감지지공(甘旨之供)을 가난한 속에서도 궐하는 일이 없었다. 양부(養父)의 상을 당하자 읍혈통곡(泣血痛哭)하며 삼년을 하루같이 하였다.(제주충효열지115p, 속수삼강록)

9). 獨身奉養의 孝

어버이를 지성으로 모시기 위하여 평생을 장가를 들지 않고 독신으로 지낸 사례

①진대석(秦大石) - 처자(妻子)를 두면 모친을 공양하는데 전심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장가를 들지 않고 홀로 살면서 손수 밥을 지어 올렸다.(효열록 21p)

②고윤문(高允文) - 나이가 이미 성인이 되었으니,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면, "아내를 맞이해서 어머니의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홀아비로 살면서 몸소 어머니의 뜻을 받드느니만 못하다 " 고 하여, 한평생 아내를 얻지 아니하였다.(효열록 24p)

③고한원(高漢元) - 90세 되는 늙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집이 본래 가난하여 끼니를 잇기 어려웠고 나이 30살이 지나도록 아내를 맞이하지 못 하였다.(효열록29p, 속수삼강록, 탐라기년, 증보탐라지, 제주충효열지)

10). 斷髮의 孝

약값 또는 장례비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또는 국채를 보상하기위해 머리를 잘라 판 사례가 3가지 조사되었다.

①고명관(高明寬)처 左씨 - 國債 보상의 말을 듣고는 좋은 머리를 팔아 50금을 捐金하였다. 좌씨는 여자이면서도 三節이 있으니 그 뛰어난 행적에 대하여 포양하지 않을 수 없어 제주목사가 완문을 만들어 주었다.(제주충효열지166p, 속수삼강록)

②高明浩妻 金氏 - 남편이 병으로 오래 누웠으나 집이 가난하여 약을 사오지 못하므로 머리를 잘라 팔아서 구환했다.(제주충효열지155p, 속수삼강록)

③백신태(白信太)처 安씨 - 80의 시아버지가 병으로 오래 눕게 되었으나 아침 저녁으로 시탕(侍湯)하며 정성으로 간호하였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哀毁之禮로써 장사지내었으나 장비(葬費)를 마련하기 어려워 머리를 잘라 팔고서 장비에 보태었다. (제주충효열지160p, 속수삼강록)

11). 口吮膿血의 孝(고름을 입으로 빨아냄)

① 고영운(高永雲)妻 梁氏 - 어느 날 시어머니가 등창병으로 고통이 심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화농(化膿)한 것을 입으로 빨아 낫게 하였다.(내고장전통문화42p, 속수삼강록)

② 고여진(高汝珍)妻 康氏 - 시아버지가 등창이 나니 입으로 빨아서 구환했다.(제주충효열지172p, 속수삼강록)

③ 고명관(高明寬)妻 左氏 - 시어머니가 발에 병이 나자 백약을 썼지만 효험이 없었으므로 입으로 膿血을 빨아 구환했고…(제주선현지400p, 속수삼강록)

12). 讓位奉養의 孝(벼슬을 사양함)

부모가 돌아가신 후 여막살이를 하는 기간에는 일체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관직에 있는 상주라면 그 관직을 버리고 삼년상을 치러야 했다. 여막살이를 하는 상주는 물론이고, 여막살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직에 있는 사람이 부모상을 당하면 그만 두는 것이 통례였던 것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①고명학(高鳴鶴) - 정조18년(1794년)에 문과에 급제했고 처음에 현승(縣丞)이 되었으나 어버이가 늙었다 하여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스스로 밭 갈고 사냥하며 맛있는 음식으로 공양하였다. 갑술년(1814년)에 어사가 이 사실을 아뢰자 장령(掌令)을 제수하였으나 어버이가 늙었다하여 취임하지 않았다. 그 후 대정 현감을 제수하여 어버이를 편히 모시도록 하였으나 또한 친상(親喪)중이라 하여 부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의 행의(行義)를 동소남(董昭南)에 비교하여 칭찬하였다. (제주충효열지87p, 속수삼강록, 탐라기년)

13). 經血奉養의 孝(종아리 살을 베어 먹임)

① 김칭(金秤) - 그의 어머니가 종기로 앓아 기절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갓을 벗고 맨발로 달려가 하루 사이에 두 번이나 그의 정강이 살을 베어 술에 타 드렸더니, 어머니가 소생하여 마침내 20여 년을 봉양하였다.(남사록,탐라지,효열록21p)

14). 順從의 孝

①고윤문 - 어머니 성품이 조급하여 노여워하며, 자꾸 꾸짖으며 매질〔叱笞〕이 있을 때마다 앉아서 그 매를 맞았는데, 사람들이 혹 피하라고 권하면, "자식의 도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어머니의 노여움이 더할까 두렵다." 고 하였다.(효열록24p ,속수삼강록. 탐라기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5). 신문고를 울린 孝

①김광숙(金光淑) - 일찍이 그의 아버지 상빈(尙嬪)이 남의 모함으로 죽음을 당하였으므로 광숙은 평생을 분통히 여겨 남과 웃으며 말하는 일이 없고 눈물 마른 날이 없었다. 순조20년(1820)에 신문고(申聞鼓)를 울려서 그 한을 풀었다.(제주의 충효열지96p, 속수삼강록, 탐라기년, 증보탐라지)

3. 旌閭碑의 敎育的 意義

지금까지 旌閭碑에 나타난 濟州人의 효행사례를 살펴보았다. 9살의 어린 나이에 단지 수혈을 한 예, 대를 이은 효행, 어버이의 변을 맛보며 치료의 대책을 세우고, 어버이에게 효성을 다하기 위해 독신으로 지내거나 벼슬까지도 사양한 예, 등창병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낸 사례등 다양한 효행 사례들이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꿈에 계시를 받거나, 매가 꿩을 데려다줌으로써 祭需를 마련하고, 물고기나 까치 노루등이 나타난다든가, 혹은 전복이나 메추라기등도 등장하고 백어(白魚)가 여울 밖으로 뛰어 나왔다든가 하여, 일상적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효성을 발휘하여 하늘을 감동하게 한다는 일련의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은 孝誠을 다하기 위해 애쓰면 하늘도 감동하여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된다는 내용이 중심이 되어 孝에 대한 긍정과 절대성이 강조되어 있다. 이런 다양한 내용들은 학생들에게 효를 교육시키는 데에 있어서 흥미를 자극할 만한 소재가 되도록 이끌기에 충분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회적 공간이 다른 현대에서는 그 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재해석하는 자세가 항상 요청된다고 하겠다.

高永復은 바람직한 現代的인 孝에 대하여 ① 規範的인 것이 아니라 價値指向的인 것이라야 하고, ② 人間疏外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하고, ③ 가족관계에서의 役割槪念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28] 고 했다.

傳統的인 孝는 身分的 支配와 관계가 있었고, 規範이라는 사회적 압력과 통제에 의한 강요된 요소가 내포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規範은 전통사회에서는 나름대로의 가치가 인정되었지만 현대인에게는 저항감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現代社會에서의 바람직한 孝는 강압적이고 규범적인 것보다는 사랑을 전제로하는 價値合理的인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과 자녀가 부모에게 느끼는 애정은 동질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자녀가 부모에게 바치는 사랑이 孝道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은 慈愛라 해석할 수 있다. 父慈子孝의 관계가 사랑의 原理에 입각해서 情神的 유대를 맺어 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예전에 나라에서 미풍 양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효자·열녀등 모범이

28) 高永復(1983), "전통사회의 효개념과 현실적 과제",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아산사회복지재단, pp. 54~56.

되는 사람을 조사하여 정문을 세우고 복호의 혜택을 주었던 忠孝烈 奬勵制度와 비교해 볼 때 현재의 효행에 관한 표창제도는 미약하기 그지없다.

旌閭碑를 마을 입구에 세워 지나가고 오는 사람들에게 본받도록 하고 부역을 감면해주었으며 旌閭碑에 金石文을 새겨 넣어 칭송하였던 것과는 달리 현재에 시행되고 있는 효행에 관한 표창제도는 너무나 미미하다. 그나마 표창내용도 단순한 표창장이나 금전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바 자칫 허무감이나 이기심을 조장하기가 쉽다.

학교는 물론 사회나 국가에서도 효행에 관한 표창제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서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정려비를 마을 입구나 학교 또는 공공기관등에 세운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효행에 관한 장려제도를 발전시켜 孝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야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V. 결 론

지금까지 旌閭碑에 나타난 濟州人의 구체적인 효행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단지 수혈을 한 예, 대를 이은 효행, 어버이의 변을 맛보며 치료의 대책을 세웠고 어버이에게 효성을 다하기 위해 독신으로 지내기까지 하였으며 등창병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낸 사례 등도 조사되었다. 그 중에는 꿈에 계시를 받거나, 매가 꿩을 데려다줌으로써 祭需를 마련하고, 물고기나 까치 노루 전복 메추라기도 등장하고 백어(白魚)가 여울 밖으로 뛰어 나왔다든가 하여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는 일련의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다. 이런 다양한 내용들은 학생들에게 효를 교육시키는 데에 있어서 흥미를 자극할 만한 소재가 되도록 이끌기에 충분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歷史上의 모든 創造나 建設에는 반드시 가꾸고 길러온 文化的 歷史的 遺産의 傳承이 前提된다. 오랜 傳統을 創造로 연결시키는 작업, 즉 새로운 창조적 요소를 收容할 때 언제나 자기의 傳統的 氣質을 더욱 생기있게 살리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傳統은 歷史的 價値的인 觀念이며 社會保障의 기능과 社會創造의 기능을 담당한다. 傳統의 繼承은 한 민족이나 지역주민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문화적 과제이다. 전통을 밑바탕으로 한 새로운 창조만이 제주인의 용기와 자부심의 원천이며, 또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과거에 뿌리를 두지 않은 현재는 없으며 어떠한 현실도 고정된 상태로 있지는 않다. 현실은 언제나 과거의 전통위에 있으며, 지금의 현실도 머지않아 새로운 현실에 대해 전통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전통윤리」 과목이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심화 선택과목으로 설정하게 된 것도 어느 민족이나 중시될 수밖에 없는 정체성 교육의 일환으로,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윤리적 삶의 전통을 보다 심도 있게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통의 재창조라는 측면에서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孝 규범이나 정신들을 재해석하는 노력과, 아울러 '전통' 이라는 단어가 흔히 줄 수 있는 인습적이고 고답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노력이 요청된다. 父慈子孝의 관계가 사랑의 原理에 입각해서 情神的 유대를 맺어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하며 또한 孝사상을 잘못 이해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해 온 관념을 버려야 한다. 효는 내리사랑에 대한 치사랑이며 충이 外延개념이라면 효는 內延개념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오늘날 사회 구조나 환경에 알맞는 효행 생활의 해석이나 교육에 있어서의 역점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효 교육은 일방적 주입 일변도의 방법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처지에 따라서 그 내용이나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오늘날은 그 자체가 매우 다양하고 유동적인 사회이며 개인도 집단에 매몰되기보다는 뚜렷한 개성을 지닌 개체로 파악되어야 할 뿐 아니라 각자의 특성을 존중하고 또한 신장시켜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효행 생활이 절대적 규범이나 형태로서만 고집될 수 없으며 실천면에서 그 다양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효행 사례의 해석이나 실천에 관한 교육은 합리적 사고의 터전 위에 이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과학문명의 발달과 인간의 인지가 개발된 오늘에 있어서 제주인의 효행사례를 단순한 전설적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끝난다면 효 교육은 단지 옛날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 머물 뿐이고 현실생활에 적용되고 실천할 수 있는 가치 체계나 실천 덕목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통의 재창조라는 측면에서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효 규범이나 정신들을 그 규범이 처음에 가졌던 근본정신에 입각해서 재해석하려는 노력과 자세가 요청된다.

셋째, 효행 생활은 스스로의 행동과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그것은 자칫하면 맹목적이거나 권위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마저 없지 않다. 원래 효경이란 부모에 대한 자식으로서 또는 연장자에 대한 연소자의 맹목적인 희생이나 생활력을 잃은 노년자에 대한 단순한 동정심이 아닌 참다운 인간성을 기초로 인간의 사랑을 더하는 정신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본적인 정신이 전제되지 않는 한 오늘의 생활에서 그것을 실현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겉치레에 머물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효행 생활은 정착되지 않을 것이다.

넷째, 효행 생활은 보다 넓고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두루 적용할 수 있는 규범으로 해석되고 교육되어져야 한다. 종전의 경로나 효친이 자칫 가족중심적인 범주에서만 적용되기 쉬웠다면 넓은 의미에서의 원만한 인간관계는 불리하게 적용하였을 것이다. 효경의 본래적 개념이 단순히 부자관계의 행위 규정이라기 보다는 근원적인 인간관계 형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자칫 상실하기 쉬운 인간소외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인간성 회복의 차원에서 학습되고 인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의 효행에 대한 장려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효행에 대한 장려제도는 과거의 충효열 정려제도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미약하다 지금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효행에 관한 표창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 날이나 어버이 날을 전후하여 일회성 행사로 효행어린이를 시상하거나 효행일기 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기 우수아를 표창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또한 대외상으로서 사단법인 제주복지회에서 해마다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1명씩 충효패를 수여하고 있으나 보통 효행과는 관계없이 모범어린이를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한국BBS제주도연맹이 제정한 청소년 10대상 부문에 '웃어른과 어버이 공경하는 마음을 앞세우며, 어버이를 도와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솔선하므로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된 청소년' 에게 효도(孝道)부문 본상을 시상하고 있으나 대상인원이 너무 적어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몇 해 전에 제주도교육청에서 시행되다가 없어져 버린 '제주어린이 명예장'제도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어린이 독서상제'처럼 '제주어린이 효행장'제도를 새로 만든다든가 하여 학교급별로 효행에 관한 표창제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한다. 더 나아가서 현대적인 정려비 제도를 다시 도입하여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도서관, 예절관, 마을 입구등에 현대적인 정려비를 세워봄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효행에 관한 장려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孝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고 문헌

<단행본>

고범서(1992), 「가치관연구」, 나남.

고창석 역(1997), 「제주교육박물관자료집(1) 효열록」, 제주교육박물관.

교육부(1998), 「초등학교 교유과정 해설(Ⅲ)-국어,도덕,사회」,서울특별시인쇄공업조합.

(1999),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도덕)」, 국정교과서주식회사.

교육부·경기도교육청(1988), 「이제는 행동이 달라지는 인성교육이 필요합니다.」, 문성사

김익수(1983), 「효경대의」, 수덕문화사

김종서·최정숙(1992), 「교육연구법」, 한국방송대학교출판사.

김태길 외(1988), 「한국사회와 시민의식」, 문음사.

권오돈 역(1987), 「예기」, 홍신문화사.

남제주군(1996), 「남제주군의 문화유산」, 세림원색인쇄사

(1992), 「남제주의 문화유적」,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박용후(1976), 「제주도지」, 백영사.

봉개국민학교(1987), 「향토지」, 성심인쇄사.

북제주군 문화공보실(1982), 「내고장 전통문화」, 일신옵셋인쇄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편(1985), 「경로효친의 교육」, 농원문화사.

양근석(1994), 「한국사상과 윤리」, 형설출판사.

이가원 역(1988), 「논어」, 홍신문화사.

이기석·한백우 역(1988),「논어」, 홍신문화사,

이병호(1994), 「도덕전서」, 도덕성회복국민운동본부.

이성무(1996), 「중문향토지 불란지야 불싸지라」, 유경문화인쇄사.

이영호(1977), 「한국인의 가치관」, 일지사.

이준호(1973), 「율곡의 사상」, 현암사

임희섭(1987), 「한국사회의 발전과 문화」, 나남.

조명기 외(1994), 「한국사상의 심층」, 우석출판사.

제주교육박물관(1999), 「우리문화 이야기」, 제주교육박물관운영부.
제주도(1988), 「제주선현지」, 일신옵셋인쇄사.
제주도교육연구원(1985), 「탐라의 충효열」, 경신인쇄주식회사.
(1996), 「향토사교육자료」, 태명인쇄사.
제주도교육위원회(1985), 「삼무의 얼」, 태화인쇄사.
(1986), 「삼무의 얼」, 태화인쇄사.
(1987), 「제주교육연혁지(Ⅰ)」, 일신옵셋인쇄사.
제주도교육청(1996), 「제주의 전통문화」, 대영인쇄사.
제주도교육청(1998), 「섬 속의 우리」,
(1993), 「우리고장 제주도」, 일신옵셋인쇄사.
제주역사연구회(1989), 「제주향토무크①」, 일신옵셋인쇄사.
최근덕(1995),「유학강의」, 성균관출판사.
한국공자학회(1986), 「공자사상과 현대」, 사상사회연구소.
한국국민윤리학회편(1994), 「국민윤리학개론」, 형설출판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 「전통윤리의 현대적 조명」, 천풍인쇄주식회사.
황병국 역(1990), 「효경」, 혜원출판사.
황준연(1995), 「한국사상의 이해」, 박영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논 문>

강석봉(1994), "전통적 효요소에 의한 효의식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고영복(1983), "전통사회의 효개념과 현실적 과제", 「현대사회와 노인복지」,아산사회복지재단
고인호(1999), "제주도 초등학생의 효 의식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금장태(1985), "현대 한국사회와 전통적 가치관" 「논문집」, 제21호, 국민윤리연구회
박선민(1997), "부산시내 초·중등학생의 효 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재형(1998), "제주 전래동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보성국민학교(1986), 「향토지 대정골의 역사」, 성심인쇄사
백승기(1979), "효사상과 국민총화" 「논문집」, 국민윤리연구회.
신정남(1996), "효사상의 현대적 조명",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1996), 「한국사회의 도덕성 제고를 위한 진단과 처방」, 연구보고서, 정문출판.
안봉희(1996), "효도 사상과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안창범(1978), "한국충효사상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오세정(1997), "한국전통사상에서의 효개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용문(1996), "고시조에 나타난 충·효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인균(1997), "효의 인식과 가정환경",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진헌(1982), "한국충효사상의 발달에 관한 사적 고찰" 「논문집」, 제14집, 국민윤리연구회.
이상순(1981), "효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12집, 국민윤리연구회.
임수무(1983), "효의 철학적 근거" 「논문집」, 제16집, 국민윤리연구회.
정창수(1990), "충효윤리의 교육적 전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기석(1998), "'효'사상에 나타난 윤리적 문제의 비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기타문헌>

고사성어사전간행회 편(1961), 「고사성어사전」, 학원사.
두산동아백과사전연구소(1996),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신기철·신용철(1988), 「새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유정기 편(1965), 「동양사상사전」, 우문당출판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5)」, 웅진출판주식회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Summary]

[excerpt in Korean]

A STUDY ON FILIAL CONDUCT OF PEOPLE OF CHEJU AS FOUND JEONGLYEOBI OR THE MUNUMENT OF HONOR AND ENCOURAGEMNT

Jang Keo - shoo

National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Ahn Chang - beom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This study is aimed at defining the basic conception of filial piety and breaking down the inscriptions of filial conduct scattered in Cheju island and the examples of those who were honored and encouraged by filial conduct to heighten the awareness of filial education and get the data which are necessary for educational activities.

This study was put into practice in order of theoretical research, the investigation of related documents, field investigation and the analysis of examples First, as for theoretical research the conception of filial piety was examined in both traditional and modern way. Second, as for the investigation of related documents the filial conduct of thos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0

who were honored and encouraged was investigated in reference to the documents concerning filial conduct published up to the present. Third, as for field research I explored the seats of monuments and compared them with the related documents to make sure whether the monuments and the inscriptions of them were or not. Fourth, as for break · down of the result I made a rearrangement in order of examples of high frequency centering on specific examples of filial piety.

The investigation of the inscriptions covered all of them related to filial conduct, such as the monuments of loyalty and filial piety, filial piety and chastity and both of them as well as the monuments of filial son and faithful daughter - in - law among the existing monuments in Cheju area.

To put it briefly, it is as follows.

1. Chosheon Dynasty promoted the policy of people's education in a positive way through the policy of jeongmun or honor & encouragement especially in 1800's.

2. The number of existing Jeonglyeobi or the monuments of honor & encouragement is 50 totally; there are 3 in Cheju city, 37 in North Cheju gun and 12 South Cheju gun.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The specific examples of filial conduct were various; the example of cutting off the finger and giving blood was 33, the filial piety of moving heaven was 21, the filial piety of successive generations was 15, the example of tasting excrements was 12, the filial conduct of taking mourning well for three years was 10, the filial conduct of supporting the handicapped was 10, the example of contributing cash and possessions 10, filial conduct of maintaining foster parents well was 4, the filial conduct of living a single life was 3, the filial conduct of cutting the hair off was 3 and the others were 4.

4. There were many of the filial piety of moving heaven which could interest children. When it comes to the story of them, generally there appeared roe deer, pheasant, magpie, horned owl, quail, abalone, and so on and if people did their best to complete their filial conduct, it moved heaven and could make impossible works possible.

5. In terms of recreation of tradition,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have an effort and attitude to interpret the criterion or spirit of traditional filial piety on the basis of the fundamental spirit.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I think that if teachers teach the examples of filial conduct which children think of positively and they don't in harmony with real life and make use of the data with various educational method according to sex and environment of children, the filial education will have a great effect on humanities education for pupil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